

천주교서울대교구

직장사목팀 월간지

트리플 직장인 월간지



VOLUME 313 | SEPTEMBER 2023



范世亨

1797年 4月 15日 出生
1939年 9月 21日 殉教

LAURENT-
JOSEPH-
MARIUS
IMBERT

主教

2023.09.09
정도훈

라우렌시오
의



천주교서울대교구 직장사목팀 월간지
2023년 9월호 / 통권 313호

발행일 2023년 9월 1일

발행인 정순택

편집장 노우식

편집 및 디자인 직장사목팀 편집부

인쇄 상경커뮤니케이션즈

발행처 천주교서울대교구 직장사목팀

04537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74-3 교구청 별관 5층

전화 02-727-2078 팩스 02-753-3792 홈페이지 www.catholicworkers.or.kr

Copyright 2023©천주교서울대교구 직장사목팀

월간지 <가톨릭 직장인>에 실린 글, 그림 및 사진 등은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Contents

VOLUME 313 | SEPTEMBER 2023

렌즈로 보는 세상	4	124위 전체도
편집장의 글	5	
함께 읽는 성경	6	세상에서 제일 쉽고 재미있는 성경공부 하실래요?
교회의 가르침	10	하느님 사랑의 선물 7성사
	14	가톨릭 직장인을 위한 쉬운 사회교리
	20	순교자를 통해 살펴보는 한국교회사
	24	교황 회칙 「찬미받으소서」 해설
	28	‘성인’ 이름을 알면 영성이 보인다
신앙과 삶	32	그리스도인의 건강 비법
듣다 읽다 보다	34	고전 음악을 듣다
	42	함께 읽는 세계 문학 - 중남미 문학의 숲을 걷다
	46	신앙인의 영화 보기와 세상
	50	신앙의 땅, 이스라엘을 거닐다
	56	정원이야기
	60	그림으로 만나는 성인이야기
알리는 글	66	직장사목팀 행사 및 소식



THE COVER

성 앙베르 라우렌시오

그린이: 정도운 엘리야(<http://artist-jdw.com>)



124위 전체도 새벽 빛을 여는 사람들. 김영주 이멜다 작. 2014

참 좋으신 주님이 주시는 은총과 평화가 「가톨릭 직장인」 애독자 여러분과 함께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올여름, 한반도는 폭우와 폭염이 반복되어 발생하는 극단적인 이상 기후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기후 재앙이라는 전대미문의 현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외 기후 과학자들이 기후변화로 폭염·폭우와 같은 극한기후 현상이 ‘뉴노멀’(새로운 표준)로 자리 잡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극한기후가 일상화되고, 그에 따른 홍수·산불·태풍 등 기상 재해가 잦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극한기후의 일상화에 맞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입추도 지나고, 9월로 접어들면서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계절의 변화가 반갑기만 합니다. 무더위에 다소 지친 몸과 마음에 시원한 하늘 바람이 불어오면 좋겠습니다.

9월은 순교자 성월입니다. 한국 천주교회는 외국인 선교사가 천주교를 우리나라에 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 스스로 천주교 신앙을 받아들였음을 자랑으로 여깁니다. 이는 세계 교회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유일한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렇게 신앙을 받아들인 한국 천주교회는 신앙의 자유를 얻기까지 100여 년 동안 네 번에 걸친 커다란 박해(신유, 기해, 병오, 병인)로 수많은 순교자가 생겨났습니다. 그 가운데 103명은 1984년에 시성 되어 전 세계 천주교 신자들의 공경을 받게 되었으며, 124명은 2014년에 광화문에서 시복되어 한국 신자들의 공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국 교회는 다른 순교자와 증거자의 시성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103위 성인과 124위 복자 가운데 몇 분의 이름을 기억하시나요? 103위 성인과 124위 복자를 가진 우리들의 모습이 과연 순교 영성을 살고, 증거하고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9월 순교자 성월을 맞이해서 한국 성인들과 복자들의 이름만이라도 알아두었으면 합니다.



서울대학교 직장사목팀 본부장

세상에서 제일 쉽고 재미있는 성경공부 하실래요?

허영엽 마티아 신부_ 서울대학교 사목국 영성심리상담교육원장

창세기 공부(12장-20장)

12장은 창세기에 나오는 네 명의 성조 이야기 중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원조입니다. 그의 신앙은 어떠하였습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와 차이가 없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인간적으로 해결하려 했었고, 신앙적으로도 빛나간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우리에게 이런 모습은 오히려 위로가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떠나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떠났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 대한 신뢰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저 믿는다는 것 하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믿음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잘 알려줍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 그것만큼 삶에서, 신앙생활에서 고통스러운 것은 없을 것입니다. 신앙생활 시간에 비례하듯이 내 신앙생활은 단단하게 쌓여져 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정말 보잘것없다는 것을 우리의 체험을 통해서도 잘 알게됩니다. 세속의 큰 유혹이 다가오면 뿌리째 뽑히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입니다. 사실은 우리의 삶이 순탄할 때는 문제가 없지만, 고통이나 시련이 다가오면 신앙의 민낯을 드러내게 됩니다. 우리의 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우정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보통 때는 알 수가 없지만, 내가 정말 큰 고통을 겪을 때, 시련에 닥칠 때, 그때 정말 나를 도와주고 내 곁에 있어 줄 때 진정한 우정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창세기 12장 이하에 나오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성서에 보면 인간쪽에서 약속을 파기하지만 하나님은 늘 용서할 준비가 되어있고 약속을 갱신해주십니다. 믿음의 원조인 아브라함의 삶을 보며 제일 먼저는 순종의 자세를 본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이 순종의 첫 단계가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지만, 유혹이 올 때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매달리지 못합니다. 그에게 첫 번째 시험이 주어집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도착했지만 기근이 들어 이집트로 내려가는데 그에게는 아름다운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파라오에게 아내를 빼앗길까봐 누이동생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집트의 왕은 이 사실을 알게 되고 그들의 일가를 쫓아내게 됩니다. 다행히 아브라함은 많은 재물을 얻었고 그 기반으로 부자가 됩니다. 부자가 되니 가족 간의 분쟁이 시작되게 되는데 아들같은 조카 롯과 좋은 관계였지만 분쟁이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은 우리들의 삶과 많이 닮아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살면서 신앙의 시험을 당하고 잘못도 거듭하지만,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돌아갔을 때 용서해주시고 더 큰 축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

창세기 12장에서 20장까지 읽고 문제에 답해주세요.

-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이름은?
- 아브라함과 동행 한 사람들은 누구인가? (12,4-5)
- 아브라함이 도착한 땅은 어디인가?
- 아브라함이 이집트를 나와 어디로 갔는가? (13,1)
- 롯이 여러 성읍에 살다가 천막을 친 곳은? (13,12)
- 소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나? (13,13)
- 동맹을 맺은 다섯 왕의 군사가 집결한 장소는? (14,3)
- 전쟁에서 패한 왕은 누구인가? (14,8-11)
- 롯은 어떻게 되었는가? (14,12)
- 아브라함은 롯이 붙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하였는가? (14,14-16)
- 아브라함은 하느님께 무엇이 없다고 불평했는가? (15,2-3)
- 하느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나?(15,5)
- 아브라함에게 하느님께서 무엇을 바치라고 했나? (15,9)
-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이”의 몸종의 이름은? (16,1)
- 아브라함이 아내의 말을 거절하지 못한 이유는? (16,2)
- 천사가 하가르에게 무엇을 이야기했나? (16,8-12)
-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세 사람은 사실은 누구인가? (18,2)

- 사라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왜 웃었나? (18,12)
- 롯이 천사로부터 허락받은 도피성의 이름은? (19,22)
-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다 무엇이 되었나? (19,26)

다음 성서 구절을 직접 써보세요.

- 6창세기 15장 1절-7절
- 창세기 17장 2절-8절
- 창세기 18장 10절-14절
- 창세기 19장 26절-29절

생활을 반성해보고 영적일기를 써보세요.

- “뒤를 돌아보지 말라”(19,17) 하신 하느님의 말씀을 어긴 롯의 아내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나요?
- 아브라함과 롯의 결별에서 무엇을 느끼니까?
-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받았던 가장 큰 유혹은 무엇인가요?



하느님 사랑의 선물 7성사

혼인성사, “하느님께서 맺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마르 10,9)

왕태연 요셉 신부_ 의정부교구 토평동 성당

“결혼은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라는 말은 이제 세련된 인식을 표현하는 것을 넘어서서 당연한 말로 자리 잡아 가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젊은 세대가 젊어지고 있는 경제적 부담감과 더불어 혼인생활 자체에 대한 회의(懷疑) 또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나라의 젊은 세대에게 점차 “혼인”은 사랑의 결실이 아니라, 현실의 벽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혼인 생활의 필요성과 가치는 점점 외면당하고, ‘독신주의’ 또는 ‘비혼주의(非婚主義)’가 젊은 세대의 자연스러운 문화로 인식되어 가고 있습니다. 물론 강제적으로라도 무조건 결혼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결혼은 사랑을 근본에 두고 있는 것이며, 사랑은 결코 강제로 이루어질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칫 현실적으로 겪고 있는 젊은 세대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혼인 생활의 가치는 물론, 사랑의 가치를 훼손시킬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매우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은 인간의 자유로운 의지에서 비롯되는 것이지만, 사랑은 인간이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1604항**은 이러한 사랑의 속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인간이 타고난 근본 소명입니다. 인간은 바로 사랑이신 하느님과 닮은 모습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남녀간의 사랑이 당신께



서 사람을 사랑하시는 절대적이고 변함 없는 사랑의 표상이 되게 하십니다. (….) 하느님께서 축복하시는 이 사랑은 풍성한 열매를 맺고, 창조된 세상을 지키는 공동 노력으로 실현됩니다.”

따라서, 혼인성사는 남녀가 이루는 사랑의 결실이면서 동시에 인간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장(場)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가톨릭 교회가 젊은 세대가 겪고 있는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들에 대한 직접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없다 하더라도, 혼인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해야만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혼인성사의 집전자는 사제가 아닌 “신랑과 신부”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느님 은총의 가시적 표현”이라는 성사의 정의에 따라 생각했을 때, 성사의 거행에서 그 가시적 표현들, 즉 특정한 말이나 행동을 하는 것은 주로 그 성사의 집전자인 ‘사제’이지만, 혼인성사에서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은총과 사랑을 드러내는 것은 ‘신랑과 신부’입니다. 신랑과 신부가 하느님 앞에서 맹세하는 ‘혼인 합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께서 교회와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1611항은 신랑과 신부가 드러내는 하느님 사랑의 표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언자들은 이스라엘과 맺으신 하느님의 계약을 독점적이고 충실한 부부 사랑의 표상이라고 보고 혼인의 단일성과 불가해소성을 깊이 이해하도록, 선택된 백성의 의식을 준비시켰습니다. 룻기와 토빗기는 혼인과 부부의 신의와 애정이라는 고상한 의식에 대해 감동적인

증언을 담고 있습니다. 성전은, 아가에서 발견되는 ‘죽음처럼 강한’ 사랑, ‘물살도 쓸어 갈 수 없는’(아가 8,6~7) 사랑이라는 표현을 하느님의 사랑을 반영하는 인간 사랑의 독특한 표현으로 언제나 여겨 왔습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가 아가서의 표현을 인용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혼인성사를 통해 드러나는 사랑은 단순히 남자와 여자의 만남을 통해 이루어지는 인간의 감정을 뛰어넘어 하느님께서 세상을 향해 드러내시는 “영원불멸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나라의 사회 분위기는 이혼이 큰 흠이 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돌아온 싱글(single)’이라는 의미의 “돌싱”이라는 신조어가 흔히 사용되기도 하고, 누군가의 이혼 경력이나 그 사람의 사회적 진출을 가로막거나, 도덕적 평가의 요소로 사용되기도 않습니다. 물론, 이혼 경력으로 누군가의 인간적 품성을 평가할 수 없으며, 이혼 경력으로 인해서 공동체로부터 배척당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가톨릭 교회 공동체에 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톨릭 교회 안에서 이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의 아픔이나 상처에 대한 배려는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혼인성사에 대한 책임감과 성실성을 거스르는 것은 교회의 입장에서 큰 상처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가톨릭 교회는 혼인성사에 있어서 신랑과 신부가 지켜야 할 고유하고, 고귀한 가치들에 대해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특히, 가톨릭 교회 교리서 1664항에서는 “단일성과 불가해소성과 출산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은 혼인에 필수적입니다. 일부다처제는 혼인의 단일성과 양립할 수 없고, 이혼은 하느님께서 맺어 주신 것을 가르는 것이며, 출산 거부는 하느님께서 부부 생활에 주시는, 자녀라는 ‘가장 뛰어난 선물’을 외면하는 것입니다.”라고 가르치며 신랑과 신부의 온전한 자기증여로 이루어지는 혼인의 “단일성”과 하느님께서 맺으신 것을 사람이 결코 풀 수 없음을 이야기하는 “불가해소성”, 그리고 혼인을 통해 하느님의 창조에 동참하는 “출산”이야말로 혼인성

사의 매우 중요하고 고유한 가치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가톨릭 교회가 강조하는 이러한 혼인성사의 목적과 가치들은 오늘날 이혼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회 분위기에서 외면당하기도 하고, 그 중요성을 축소 시키려는 의견과 부딪히는 일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톨릭 교회가 강조하는 혼인의 가치들은 시대의 흐름에 적응하지 못하는 교회의 낡은 가르침이 결코 아닙니다.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서로를 불가분(不可分)의 내조자로 세우신 하느님의 창조질서를 인간이 편의에 따라 바꿀 수 없으며, 사랑의 의미와 가치 또한 인간이 주어진 상황에 따라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혼인은 단순히 자기만족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없습니다. 혼인은 배우자에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온전한 자기증여”의 행위이며, 이를 통해 주어지는 “출산”이라는 선물 또한 당사자들의 선택이 아닌, 생명에 대한 거룩한 봉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혼인성사의 가치는 혼인 당사자 외에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혼인 당사자들에 의해서조차 결코 훼손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 그 사랑을 변함없이 이어갈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은 인간의 능력과 의지만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인간이 만들어낸 인간의 창조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톨릭 교회의 혼인성사가 드러내 주는 것처럼, 이 모든 것은 사랑의 원천이시며 근원이시고, 사랑 그 자체이신 하느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임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1요한 4,11) ㉞

「가톨릭 직장인」 가톨릭 직장인을 위한 쉬운 사회교리 ⑩

참여(參與), 그리스도인 사회생활의 원리
- 공동선 실현에 참여할 책임과 의무 -

박동호 안드레아 신부

‘더 작은 집단의 자율성과 책임’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보조성의 원리에는 이미 ‘참여’의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수준과 규모에 있어 다양한 집단들 사이의 유기적 관계망을 ‘사회’라 할 수 있는데, 그 점에서 ‘사회’는 집단들의 성원들이 책임 있는 자세로 참여함으로써 그 ‘생활(生活)’을 영위하게 됩니다. 우리가 쉽게 경험하듯이, 성원들의 책임 있는 참여가 없다면, 그 집단은 소수의 독단에 따라 운영되어 결국 다수 구성원의 고통(부담)을 초래하거나, 극단적으로는 해체되어 소멸하기도 합니다. 역사는 정치 공동체(나라)들마저도 그럴 수 있음을 가르칩니다.

1. 참여의 원리, 그 권리와 의무

오“개인으로도 다른 이들과 연합해서든, 직접으로도 대표를 통해서든, 시민이 그가 속한 시민 공동체의 문화·경제·정치·사회생활에 공헌하려는 일련의 활동들로 드러나는 그 책임 있는 참여는, 모든 시민이, 책임감을 지니고 또 공동선을 기대하며, 의식적으로 이행하여야 할 하나의 의무이다. 물론 이 참여는 사회생활의 특정 분야에만 제한되거나 국한될 수 없다”(「간추린 사회교리」, 189항).

우선 시민(市民)과 시민 공동체에 관한 이해가 필요한 듯합니다. 「표준국어대사전」은 시민을 두고 ‘국가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 나라 헌법에 의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 자유민’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시민은 백성(百姓, 예전에 사대부가 아닌 일반 평민을 이르던 말)과 구별됩니다. 우리

의 경우 근대 이전 자유민은 사실상 사대부 계급에 속한 사람들이라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또한 ‘시민 공동체’는 ‘가족공동체’나 ‘친구들 사이의 임의 모임’과 구별됩니다. 우리가 경험하듯이, 가족이나 친구들의 모임은 혈연이나 사적인 친교의 성격을 갖지만, ‘시민 공동체’는 일종의 사회적 계약을 토대로 형성되어 그에 따른 사회적 권리와 의무의 이행을 요구하며, 그 불이행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습니다. 우리가 공(公)/사(私), 공동(共同)/개인(個人), 사회(社會)/인격(人間)의 생활로 구별하는 것도 그 성격의 차이 때문입니다. 이렇게 공동체 및 생활이 성격 또는 본성에 따라 구별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두 차원이나 영역이 분리(分離)되어 실재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가정에서의 사생활이라고 하더라도 고립무원의 생활일 수는 없습니다. 그 사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물질적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그 조건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가족 성원 누군가 ‘노동’을 해야 하며, 또 그 노동은 반드시 ‘사회’를 배경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대외의존도가 높은 나라의 경우, 예를 들어, 요즘처럼 보호무역의 추세가 강화되면, 국내경제 상황이 영향을 받고, 그것이 때로는 일자리 감소를 초래할 수도 있고, 그 결과로 실직할 수 있고, 사회 안전망이 달리 갖춰져 있지 않다면, 가정에서의 사생활은 매우 힘겨워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공적 생활이든 사생활이든, 그 생활의 주체는 바로 유일무이하고 고유한 인성을 지닌 사람입니다. ‘나’는 집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 어느 곳에 있든 ‘공적 영역에서 생활’을 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 때문에 ‘시민 공동체’는 필수적으로 모든 성원에게 공동체 생활에 필수적인 ‘권리와 의무’를 요구하게 됩니다. 또 모든 시민은 공동선을 실현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의무를 지니고, 그 공동선의 결실을 나눠가질 권리를 지닙니다. 그리고 이 의무와 권

리는 능동적인 참여를 통해 실현됩니다.

여기서 몇 가지를 진지하게 성찰하게 됩니다. 첫째, 우리는 시민 공동체 생활에 참여하는 것을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둘째, 사회생활 가운데 특정 분야는 ‘내’가 아니라 ‘전문가’들의 몫이라 여기는 것이 아닌가? 정치는 정치인들이, 경제는 경제인들이, 문화는 문화인들이 그 ‘전문성’을 갖고 해야 할 일이고, 나는 ‘내 일’에 충실하면 된다고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셋째, 현실적 조건으로, 대표를 뽑았으면 그 대표가 하라는 대로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사공이 많은 배가 산으로 간다고 우려(?)하면서 말입니다.

그렇게 참여가 제한되거나 국한된다면, ‘자유’의 권리’는 타인과 시민 공동체에 대한 의무가 실종된 ‘이기적 권리로’(「모든 형제」, 111항; 163-166항 참조), ‘민주제(民主制, democracy)’는 시민의 참여가 무시되거나 배제되는 ‘절차’ 정도로 축소(환원)될 수 있습니다(169항 참조). 그 대표적 사례로 다수결(多數決)에 대한 태도를 들 수 있습니다. 만일 그 다수결이, 이데올로기(이념)로든, 의사결정과 집행으로든, 소수(少數) 시민을 배제하거나 부정하는 데 활용된다면, 그것은 소수 시민에 대한 다수 시민의 폭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소수민’이라 하더라도, 그들도 ‘존엄’, ‘권리’, ‘의무’에 있어 동등하면서도 고유하고 유일무이한 한 ‘인격체’입니다. 다수의 의견을 수용하더라도, 반드시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범위에서 그 결정을 집행해야 합니다.

2. 참여 - 문명사회가 보장해야 할 사회적 약자의 참여

‘포용(包容)과 참여(參與)’는 ‘배제(排除)와 소외(疏外)’와 충돌하는 의미의 어휘들입니다. 앞에서 시민 공동체 생활에 ‘책임 있는 참여’가 시민의

권리이며 의무임을 설명하면서, 하나의 사례로서, 이른바 다수결이 자칫 소수 시민에 대한 다수 시민의 배제 수단으로 오용될 가능성을 이야기했습니다. 회칙 「모든 형제」는 그 배제 및 소외를 두고 “보편적 형제(혈육) 관계의 발전을 가로막는”(9항) 것이라 밝힙니다.

복음에서 ‘되찾은 양의 비유’(루카 15,1-7)는 감동적인 여러 장면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의 청중 가운데에는 ‘세리들과 죄인들’이 있지만 ‘바리사이들과 율법 학자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뒤쫓아 가시는” 하느님을 계시(啓示)하십니다. 그 하느님께서 한 마리 양이라도 반드시 되찾아 오시는 분이시며, 그렇게 하심으로써 다시 완전한 ‘한 무리’가 된 것을 보고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잔치’를 벌이시는 것도 그 때문일 것입니다. 이를 양의 관점에서 보면, 자기를 지켜주고 돌봐주던 ‘한 무리’로 돌아가고 싶은 바람을 지닐 것입니다. 또 ‘무리’의 관점에서 보면, 그 한 마리 양의 바람이 실현되어, 완전한 한 무리로 회복하고 싶은 바람을 지닐 것입니다.

교회는 사회생활에의 ‘참여’와 관련하여, 은밀한 특권의 고착을 예방하기 위한 ‘정치 지도자들 교체’의 필요성, 사회 전 영역과 분야에 있어 ‘사회적 약자의 능동적 참여’ 보장의 필요성, ‘공직자들에 대한 도덕적 압력’의 필요성을 가르칩니다(「간추린 사회교리」, 189항 참조). 여기서 능동적 참여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for) 사회적 약자들의’ (of) 정책,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하는(with)’ 공공 정책을 의미합니다(「모든 형제」, 169항 참조).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일반적인 시혜(施惠)의 태도와 통념에는 참여가 ‘모든’ 시민의 권리라는 개념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이 권리의 배제를 드러내는 한 사례로서 일상과 대중매체에서 자주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용어를 들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누구나 그의 ‘기초생활’에 필

요한 ‘급여(서비스)’를 사회로부터 받을 ‘권리(權利)’가 법으로 보장되어 있음에도, 그 ‘권리’를 빼고 사용함으로써, 사회적 약자들을 시혜의 ‘대상’으로만 여기게 하고, 또 그런 분위기에서 공직자들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공공 정책을 펼치려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지난 수십 년 산업 현장에서 겪는 인명 피해가 전혀 줄어들지 않는 현상을 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보다는 경제적 수익과 효율성을 우선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그 분위기를 전환하려는 공공 정책의 부재 또는 결함이 낳은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민과 시민사회가 정치 및 경제 영역에 가하는 건전한 도덕적 압력(「찬미 받으소서」, 181, 206항 참조)이 절실한 까닭을 보여줍니다. 정치(政治) 생활이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공동선을 증진하려는 장기적 계획에 관한 건전한 토론과는 더는 관계가 없으며, 다른 이들을 불신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삼는 교활한 마케팅 기법들과 관련될 뿐(「모든 형제」, 15항)”이라면, 시민의 참여는 왜곡되고 대립 세력들 사이의 정쟁(政爭)만 횡행할 것이며 그 결과는, 인간적 문명사회와는 거리가 먼, 사회적 약자의 양산과 공동체 전체의 쇠락일 것입니다. 🗣️

CORNERSTONE



‡ "Saying Grace" by Jean-Baptiste-Siméon Chardin (1740), Louvre, Paris

식사기도 (Grace at Meals)

식사 전과 후에 바치는 기도를 ‘식사의 은총(Grace at Meals)’이라고 하는데 이는 감사를 뜻하는 라틴어 gratia에서 유래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많이 하는 기도가 있다면 식사 전, 후 기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식사하다 보면, 식사 전 기도는 잘 바치면서 식사 후 기도는 종종 빠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기도에는 교회의 중요한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식사 후 기도문을 보면, 음식을 맛나게 잘 먹었다는 등의 식사와 관련된 내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이고, 이 은혜에 대해 찬미와 감사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난 모든 이를 기억하며 기도를 바칩니다.

옛날 어른들은, 자신을 위해 기도할 수 없는 연옥 영혼들이 밥상 밑에서 이 기도를 애타게 기다린다고 가르치면서 식사 후 기도를 철저히 바치셨습니다. 연옥 영혼이란 가장 가난한 존재입니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래서 오직 살아있는 이들의 기도와 희생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가장 가난한 이들입니다.

식사 후 기도는 우리가 한 끼를 배부르게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다는 의미보다는 배부르게 먹어 포만감이 차오른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가장 가난한 이들을 잊지 말라는 교회의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가톨릭교회 사회 교리의 핵심을 담고 있는 이 기도 안에는 지금 나의 행복에 갇혀있지 말라는 뜻이 함께 포함된 것입니다.

교회는 항상 가난한 사람들을 선택해 왔고 이로써 교회의 존재 이유를 시대에 드러내 왔습니다. 교회는 이들에게 울고 그름이나 죄가 있고 없음을 묻지 않습니다. 누구든 인간의 존엄함이 구겨질 만큼 고통 속에 놓여있다면 이는 교회가 최우선으로 품에 안아야 할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어떤 정치적 이념을 내세우거나 제도 등을 만들지 않으셨던 것처럼 교회는 ‘정의가 무엇인가’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아프고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태오 복음은 25장 ‘최후의 심판’에서 교회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죄는 세상에 고통을 가한 책임에서가 아니고 고통에 대한 책임을 외면하는 데서 비롯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거룩한 교회는 세상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하고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이들을 대신해서 기꺼이 목소리가 되어주는 것이 바로 교회의 자리이며 역할입니다.

[2022년 2월 27일 연중 제8주일 수원주보 4-5면 중 부분 인용, 김창해 요한세례자 신부(사회복음회국장)]

순교자를 통해 살펴보는 한국교회사

홍낙민(洪樂敏, 루카, 1751-1801) 순교복자

조한건 프란치스코 신부, 한국교회사연구소 소장

홍낙민 루카는 풍산홍씨 양반가의 순교자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홍낙민은 충청도 예산현 사람으로 1780년에 진사시에 합격하였고, 1788년 문과에 급제하여 지평, 이조정랑(吏曹正郎)을 지냈습니다. 그는 그 이전에 1776년부터 권철신의 제자로 있었기 때문에 천주교에 대해서 일찍부터 알고 있었고, 1784년 천주교 공동체가 시작될 무렵, 이른바 가성직자단의 일원으로 활동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초기 공동체의 일원이었지만, 국가에서는 벼슬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천주를 따를 것인가, 국왕을 따를 것인가 고민했습니다. 그는 일단 겉으로는 천주교를 멀리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내적으로는 기도를 끊이지 않게 실천했습니다. 홍낙민은 천주교에 입교한 이후 매일 묵주기도를 드렸는데, 공무 중이나 집에 손님과 친구들이 찾아왔을 때도, 한 번도 묵주기도를 빠뜨리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황사영 백서는 홍낙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신해(1791)년 박해 때 선왕의 강압적인 명령으로 배교하여 자못 신앙의 표양이 어그러졌습니다. 그때 함께 배교한 사람들은 모두 계명을 전혀 지키지 아니하였지만, 바로(루카의 오기로 보임)만은 기도와 재(齋) 지키기를 그만두지 아니하였습니다. 을묘(1795)년 성사를 행할 때에는 보례(補禮)대세를 받은 후 사제에게 성유 도유 등 세례예식을 보완해 받는 것)를 받고 고해를 예비하였으나, 미처 판공 때가 오기도 전에 박해가 크게 일어났습니다. 그의 이름이 한영익의 고발장에 들어 있어 또 선왕에게 배교하라는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후 그는 집에 있을 때면 전심으로 계명을 지켰으며, 밖에 나가 있을 때는 세속을 거스르지 않고 순순히 따랐습니다. 기미(1799)년에 모친상을 당하자 신주를 모시지 않았습니다. 근래에 와서 열성이 조금 소생하여 장차 전심



으로 주님께 돌아가려 하였는데, 이 좋은 뜻이 미처 이루어지기도 전에 체포되어 함께 참형을 당하였습니다. … 만약 관아에 이르러 배교했다면 반드시 죽음에 이르지 아니하였을 것인데, 참형을 당하기에 이른 것을 보면 성교를 거스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황사영이 증언하는 것처럼, 그의 재판 기록에는 홍낙민 루카가 왜 참된 천주교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이제 그 심문 기록을 통해서 홍낙민 루카 복자의 순교영성을 확인해 봅시다.

첫 번째 재판: 신유 2월 12일

심판관: “너는 법을 따르는 관리로 천한 부류들과는 다른데 이 마당에 이르렀으니, 즉시 자복하여 교주가 누구인지, 책자는 어디에 있는지 하나하나 바른대로 고하라.”

홍루카: “저는 신해(1791)년 금령 이전에는 과연 요서(妖書)를 보았으나, 금령 이후에는 다시 보지 않았습니다. 그때 교주의 이름은 듣지 못했는데, 요즘에는 사람들이 이존창 무리를 교주라고 부릅니다.”

심판관: 네가 만일 사학의 그릇됨을 알고 있다면, 그 흉악하고 지극히 악랄한 실상을 조목조목 바른대로 고하라.

홍루카: 제사를 폐(廢)하는 한가지 일로 그 학문을 배워서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심판관: 너는 사학을 이적금수(夷狄禽獸)로 여기지 않느냐?

홍루카: 저는 과연 이것이 이적금수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재판: 신유 2월 13일

심판관: “너는 평소에 사학을 어떤 학문으로 인식하였으며, 과연 이 학문이 멸륜패상의 학문이라는 것을 알았느냐?”

홍루카: “저는 과연 이 학문이 홍수·맹수보다 심한 것임을 알았으므로 진실로 하지 않았습니다. 소굴과 교주 또한 고할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 밖에는 달리 아뢰

말씀이 없으니 헤아려 처분하소서”

세 번째 재판: 신유 2월 20일

심판관: “... 만일 바른대로 고하지 않는다면 다시 형벌을 가해야 할 것이니, 속히 정성을 다하여라.”

홍루카: “... 애초에는 사학을 하였지만 근래에는 다시 하지 않았으니, 동료라고 가리켜 고할 자가 없습니다.”

심판관: “... 그 전에 사학을 할 때는 누구와 함께 했으며, 사서(邪書)는 어디에서 얻어 보았는가?”

홍루카: “사서는 이윤하의 집에서 이승훈의 책을 얻어 보았습니다. 함께 배운 자는 이승훈, 정약전 형제, 권일신 무리입니다.”

심판관: “여러 죄수들이 공술에서 모두 너를 신부(神父)·대부(代父)로 알고 있다고 공술하였는데, 너는 모른다고 하니 과연 말이 되느냐?”

홍루카: “저는 실로 모르는 바입니다.”

심판관: “네가 애초에 사학을 하였다고 하였지만, 네가 공술하는 것을 보니 뉘우치고 있음을 알겠고, 물을 때마다 바로 고하니 진실로 뉘우치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겠다. 너는 현 바오로와 홍 프로타시오를 아는가?”

홍루카: “이는 제가 모르는 것입니다.”

국청: “... (홍낙민이) ‘근래에는 사학을 하지 않았다’고 한 것은 혹 근거가 없지는 않지만, 온 세상의 공론을 지나칠 수 없으니, 청컨대 다시 엄형을 가하여 실정을 알아내고서.”

네 번째 재판: 신유 2월 26일

심판관: “네가 전후 공술 가운데서 ‘근래에는 사학을 배척하였다’고 한 것은 끝내 분명한 증거가 없다. ... 바른대로 고하여라.”

홍루카: “저는 애초부터 사학을 하였다는 증거가 없는데, 또 어찌 사학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겠습니까?”

심판관: “네가 이미 강 골롬바를 알고서 지목해 고하였으니, 이 밖에 함께 악을 행하는 무리로 어찌 아는 사람이 없겠는가?”

홍루카: “제게는 죽을 죄가 있습니다. 이미 이 학문이 옳은 줄을 알고서도 10년이나 배교하였으므로 이러한 형신(刑訊)을 받고 있으니, 저는 교를 배반한 죄를 받아 마땅합니다.”

심판관: “네가 이미 교를 배반하였다는 것으로 죄를 삼는데, 비록 참형에 이른다 해도 과연 뉘우칠 마음이 없겠는가?”

홍루카: “제가 이미 옳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죽는다 해서 무엇이 한스럽겠습니까?”

심판관: “예수의 학을 도리어 옳다 여기고, 미혹되어 고칠 줄을 모른다면 마땅히 나라의 법을 받아야 할 것이다.”

홍루카: “저는 마음속으로 이 학문이 옳은 줄을 알고 있는데 억지로 그르다고 한 것은 혹 살 길이 있을까 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이제 이미 중형을 받고 장차 죽을 것이니, 무슨 필요가 있어 옳은 것을 그르다고 하여 교를 배반하겠습니까?”

심판관: “네가 만일 예수의 학을 사학(邪學)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참형에 이르지 않을 것이니, 그것이 사학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라.”

홍루카: “이미 교를 배반하지 않겠다 했는데, 이제 이처럼 죽을 처지를 당해 어찌 감히 예수를 욕하겠습니까? 헤아려 처분하소서.”

국청: “... 사형을 감해 정배하라는 뜻으로 어제 품의하여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형신을 하기에 이르자, 앞서의 공초를 반복하고 ‘이미 교를 배반하지 않았는데, 어찌 감히 예수를 욕하겠는가?’하며 제멋대로 공술하니, ... 다짐을 받고 격식을 갖추어 거행하소서.”

죄인 홍낙민 결안(판결) 정법(사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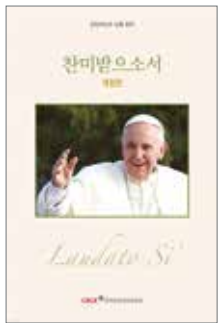
목상

홍낙민 루카는 순교영성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살고 싶어서 예수님을 한동안 부인하였지만, 베드로처럼 세 번을 배반하고서도 다시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렇게 다시 돌아올 힘이 있는지요?

지속 가능한 세상을 위한 생태적 회심: 교황 회칙 「찬미받으소서」 해설

생태 영성

송영민 아우구스티노 신부, 대구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찬미받으소서 | 프란치스코 교황 저 | 한국천주교주교회의 | 2015년 9월 5일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생활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기술의 발전도 시급하다고 합니다. 물론 맞는 말이지만, 저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영성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지구적 위기가 요청하는 문명의 전환을 위해서는 단순히 외적인 해결책을 넘어 내적인 변화가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찬미받으소서」 회칙은 “더욱 열정적으로 세상을 돌보도록 영성이 불어넣어 주는 동기 부여”(216항)가 필요하다고 강

조합니다. “우리의 개인적 공동체적 활동에 자극과 동기와 용기와 의미를 주는 어떤 내적인 힘”(216항) 없이 진정한 생태적 회개는 어렵다는 것이지요. 회칙이 제6장에서 생태 영성의 중요성을 부각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생태 영성의 기본적인 요소

회칙은 생태 영성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보다 그 바탕이 되는 몇 가지 기본적인 요소를 다

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①모든 피조물이 하느님의 모습을 어느 모로 반영하며 우리를 가르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인식; ②그리스도께서 이 물질세계에 몸소 오시고 이제 부활하시어 모든 존재의 내면에 현존하시며 사랑으로 감싸 주시고 당신 빛으로 밝혀 주신다는 확신; ③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며 그 안에 인간이 무시하지 말아야 하는 질서와 역동성을 새겨 주셨다는 인식 (221항). 이러한 신앙적 인식이 자리를 잡는다면, 이 창조 세계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과 태도 역시 달라지겠지요. 그렇습니다. “자연 전체가 하느님을 드러내 보일 뿐만 아니라 그분의 현존의 자리”(88항)임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자연 안에서 하느님의 신성한 숨결과 손길을 느끼고 그분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그 효용과는 별도로 생태계가 고유한 가치”(140항)를 지니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면, “다른 피조물과 우리를 둘러싼 세상과 맺는 관계”(221항)를 좀 더 소중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생태 영성은 하느님과 관련하여 이 물질세계를 바라보고 더 가까워지도록 우리를 초대합니다. 우리가 하느님께로 나아가기 위해 세상을 도피하거나 자연을 부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몸소 물질세계의 일부를 취하시고 궁극적인 변화

의 씨앗을 세상 안에 심어 주셨기 때문입니다”(235항). 그러므로 건강한 영성은 “인간의 몸이나 자연, 또는 세상 현실에서 분리되지 않고, 오히려 그 안에서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과 일치를 이루며 더불어 살아가는 것”(216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태 영성 역시 “창조된 세상은 하나의 관계망”(240항)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우리가 자신에게서 벗어나 다른 존재와 어떻게 조화롭게 살 것인지에 대해 실천적인 지혜를 알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감사와 무상성

「찬미받으소서」 회칙은 생태적 회개를 위해 필요한 생태 영성적 태도들도 제시합니다. 그중 하나는 감사와 무상성의 태도인데, 이는 “하느님께서 세상을 사랑으로 선물하셨음을 인식하는 것”(220항)에서 비롯됩니다. 사실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것들은 창조주 하느님께서 무상으로 주신 선물이지요. 우리가 마시는 공기와 물에서부터 아름다운 풍경과 풍부한 자원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우리는 그것에 의존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거저 받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 깨닫게 되면, 우리도 대가를 바라지 않으면서 희생

하고 아무도 인정하지 않더라도 관대한 행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를 증진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식사 전후에 잠시 하느님께 감사드리는 시간을 가지자고 제안합니다. 이 식사 기도는 “우리의 생명을 하느님께 의존하고 있음”(227항)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 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식생활 자체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운’ 일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식사 기도를 하면서 우리에게 피조물을 선물하신 것에 대하여 더 깊은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또한 노동을 통하여 이 음식을 우리에게 마련해준 이들을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속에 있으면, 자기 것에 집착하지 않고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하여 탄식하지 않게 됩니다. 지금 내가 누리는 것이 결국 은혜로이 주어진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 그 자체에 만족할 수 있고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 늘 우리가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는 소비주의에 맞설 수 있는 힘은 ‘감사의 영성’에서 나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지지 못한 것에 불안해하며 ‘좀 더 좀 더’하며 소비에 집착하는 현대인의 병을 치유할 수 있는 약은 바로 ‘감사 감사성’을 키우는 것 아닐까요?

절제와 겸손

과거에 인류가 경험했던 문제가 ‘결핍’으로 인한 것이었다면, 오늘날 생태 위기는 ‘과잉’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덧셈’보다는 ‘뺄셈의 문화’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회칙은 “절제를 통하여 성숙해지고 적은 것으로도 행복해지는 능력”(222항)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적은 것이 많은 것이다”(222항)라는 확신을 갖고, “삶이 주는 많은 다른 가능성들”(223항)에 마음을 열며, “모든 사람과 사물을 소중히 여기는 것의 의미를 체험”(223항) 해보라고 제안합니다. 한마디로 ‘적게 가지고도 큰 사람’으로 살아보라는 초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생태적 절제’가 현대인들에게 매력적으로 들리지 않을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금육과 단식이 여전히 의미 있는 종교적 실천이듯이, 탄소 단식, 비닐 단식, 택배 단식처럼 의식적으로 실천하는 절제는 좀 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지구 공동체를 위한 ‘자발적 소박함’을 실천하는 일은 부족하거나 고된 삶이 아니라, 물질적인 것을 넘어 좀 더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의미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저 쓰레기를 줄이는 데

서 그치지 않고 삶의 속도를 늦춰, 작은 것들의 진가를 알아볼 수 있게 하고 소박한 삶을 즐길 수 있는 내적 여유를 준다는 것이지요. 결국 절제의 영성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고 의식적으로 실천하는 절제는 우리를 해방시킵니다”(223항). 충족되지 못한 욕구를 쫓기보다 다른 것에서 즐거움을 찾을 기회를 주며, 가진 것이 없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나아가 우리에게 허락된 삶의 조건은 무한한 것이 아님을 인식하고 “건전한 겸손”(224항)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만일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고 아무런 제한 없이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신하게 되면, 지구 공동체에 해를 입히게 될 뿐입니다. 더 늦기 전에, 자발적 자기 제한을 통해 진정으로 충만한 삶을 지향하며 살아야겠습니다. 이 여정에 함께 합시다. 없는 대로, 부족한 대로, 불편한 대로!

참고로, 회칙의 마지막 장에는 ‘우리의 지구를 위한 기도’와 ‘그리스도인들이 피조물과 함께 드리는 기도’가 실려있습니다. 이 두 기도를 제안하신 것과 더불어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매년 9월 1일을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로 제정하시고, 이날부터 10월 4일까지를 ‘창조 시기(Season of Creation)’로 정하시면서 창조질서 보전을 위해 기도할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물론 기도한다고 갑자기 기후변화의 위협이 사라지는 것은 아닐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공동의 집 지구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네 마음과 태도는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 둘 늘어갈수록 우리 사회의 의식층도 조금씩 더 성숙할 수 있겠지요. 생태 영성적 삶을 향한 우리의 노력이 기도 안에서 힘을 얻고, 그 기도 안에서 계속 정진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성인’ 이름을 알면 영성이 보인다

성 벤체슬라오

St. Wenceslaus (축일: 9월 28일)

박희전 루케시오 신부_작은형제회

지금도 매우 유명한 전설의 록밴드(Rock Band)가 바로 ‘퀸(Queen)’입니다. 보컬리스트인 프레디 머큐리가 새로운 멤버로 합류하면서 영국 출신의 최고 레전드 밴드가 될 것이라는 꿈을 담아,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과 같은 역사적인 인물이 될 것이라는 소망을 담아서 ‘퀸’이라고 이름을 정하였습니다. 이 ‘퀸’의 대표적인 노래가 바로 4집 앨범의 ‘보헤미안 랍소디’입니다. 보헤미아는 체코 일대를 지칭하는 지역명으로, 자유분방한 삶을 추구하는 집시들이 많이 사는 곳입니다. 때로는 방종적이며 공상적이나, 현실은 암울한 지역을 보헤미안(Bohemian)이라고 지칭하기도 합니다. 한편, 랍소디(Rhapsody)는 원래 그리스 서사시를 일컫는 말이지만, 19세기 유럽에서부터 환상곡과 같이 화려한 풍으로 쓰여진 자유곡을 의미합니다. 형식도 구조도 없이 강렬하게 감정들을 표현한 음악을 두고 랍소디라고 합니다. 그래서 퀸의 보헤미안 랍소디는 번주나 오케스트라와의 협연 등, 형식과 내용에 구애받지 않는 자유분방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보헤미아(Bohemia) 지방이 자유분방하고, 때로는 방종과 환상이 교차하는 무법지대처럼 묘사되고 있긴 하지만, 교회의 역사 안에서는 간과할 수 없는 성 벤체슬라우스(Wenceslaus) 왕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이름에 담긴 어원적 의미와 이 성인의 생애를 간략히 살펴보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묵상해 보도록 합시다.

슬라브어에서 유래한 이름으로, 본디 베체슬라프(Veceslav)라는 이름의



축약형입니다. 이는 “더욱더”(more)를 뜻하는 베체veche와 “영광”(Glory)을 뜻하는 슬라바slava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벤체슬라오라는 이름 안에 담긴 어원적 의미는 한 마디로 “더욱더 큰 영광”입니다. 이를 그리스도인인 성인과 연결시키면, 하느님과 자신과의 1:1 친밀한 관계 속에서 자신의 에고(ego, 이기적 자아, 거짓 자아)로 기울지 않고 하느님께로 오히려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내는 회개자의 삶이 이미 준비되었습니다.

성 벤체슬라우스는 보헤미아 지역의 통치자였던 보르지보이 1세(Borivoj 1)와 성녀가 된 루드밀라(Ludmilla, 9월 16일) 사이에 태어난 아들로 후에 왕위를 계승한 브라티슬라프 1세(Vratislaus 1)의 두 아들과 네 딸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성인은 자신의 친할머니인 성녀 루드밀라의 지도하에 그리스도교 세례를 받았습니다. 참고로 보헤미아는 기원후 9세기경에서야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였습니다. 921년, 자신의 아버지 브라티슬라프 1세가 전사하자, 어머니 드라호미의 간섭이 심해졌습니다. 왜냐하면 드라호미는 슬라브족 비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레 벤체슬라우스 성인과 자신의 친어머니 사이에 갈등과 대립이 종교로 인해 생겨났습니다.

계속되는 갈등과 반목, 궁정 내의 당파싸움에 실망한 결과, 922년 결국 벤체슬라오 성인이 집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를 추방하였고, 궁정 내의 무질서를 바로 잡았습니다. 게다가 이웃 독일 그리스도교 선교사들의 활동을 장려하고, 그리스도교 국가로의 업그레이드를 도모하였습니다. 훗날 독일 하인리히 1세 황제의 침략을 받아 보헤미아 왕국이 곤경에 처하게 되자, 게르만 왕국에 항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보헤미아 귀족들에게 반발을 심하게 샀고, 결국 9월 28일 미사를 참례하러 가는 도중에 친동생 부하들에 의해 살해되었다고 합니다.

그의 유해는 그가 체코에서 가장 큰 성당으로 세운 성 비토(Vitus) 성당으로 옮겨져서 안장되었습니다. 그는 보헤미아, 곧 오늘날 체코의 가장 유명한 성인이자 국가적인 수호성인으로 추앙을 받고 있습니다. 체코에서는 현지어로 성 바츨라프(Vaclav)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교황 베네딕토 13세께서 1729년에 성인으로 시성하셨습니다.

벤체슬라우스 성인은 항상 매일 미사에 충실하였고, 겸손하고 담대했으며 향시 회개의 영을 모시고 살았다고 합니다. 추운 겨울에도 맨발로 걸어다닐 정도로 자신의 죄에 대한 철저한 회심에 관심을 두었고, 거친 삼베로 만든 참회복을 입고 다녔을 정도로 당시 회개자의 모습을 늘 보여주고 살았습니다. 날마다 멈추지 않고 끝까지 순종하며 자기의 이기심을 부인

하고 비워내는 철저한 회개자의 삶을 살았기에, 하느님께서 그의 이름을 지금까지도 빛나게 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이름이 영원히 빛나기 위해 지금부터 자신의 이기심을 이기려는 결단을 단호하게 내려 보도록 합시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지니셨던 바로 그 마음을 여러분 안에 간직하십시오.”(필리 2,5). ☪



그리스도인의 건강 비법

가톨릭 직장인 모임교재팀

1. 주님을 초대한다.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2. 삶을 바라본다.

TV와 방송에서 100세 시대를 당연시하며 연일 건강 관련 프로그램을 쏟아내고 있다. 건강 요가, 건강 음식, 다이어트 비법 등, 인간 누구에게나 무병장수는 가장 강한 욕심이며 소망이다.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라는 명언은 몸과 마음을 하나로 보는 동양철학의 관점에서 보면 건강한 정신이 건강한 육체를 만든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분노가 치밀 때, 심한 스트레스 상태일 때 우리의 위장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소화불량, 위염을 일으키고, 심장에서 분비하는 아드레날린은 거의 뱀의 독과 같이 우리의 건강을 해친다고 알려져 있다.

성경에서는 “무엇보다도 네 마음을 지켜라. 거기에서 생명의 샘이 흘러나온다.”(잠 4,23)라고 말하고 있다. 우리는 감정과 언어의 속임수에 빠지지 않고 참된 자아의 본질을 인식할 때, 비로소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 이는 자아의 본질이신 창조주, 하느님의 진리 본성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주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인은 하느님을 찾을 때 평화와 안식이 있고, 이에 따른 육신의 건강은 자동으로 따라올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건강한 마음을 지킬 것인가?



아침에 눈을 뜨면 아침기도로 하느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파수를 하느님의 채널에 맞추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의 영적 안테나를 통하여 하느님의 계시와 인도하심이 항상 같이하여 여러분을 모든 상황에서 지혜롭게 하시고, 여러분의 몸과 마음은 항상 하느님의 평화 속에 있게 될 것입니다.

Question

최근 가장 크게 화를 냈었던 경험이 있다면 이야기해 봅시다

3. 하느님께 귀를 기울인다.

1) 성경 본문을 읽고 함께 나눈다.

필리피서 4장 6절부터 9절까지 읽어주십시오.

2) 성서본문 중 마음에 와닿는 단어나 짧은 구절을 외친 후 묵상한다.

3)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나눈다.

기도를 통하여 받은 은총과 몸과 마음의 평화에 대하여 이야기해 봅시다.

4. 교회의 문헌을 읽는다.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께서 살아 계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서는 그에게 그것을 알려 주신 분이 “살

과 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마태16,17)라고 밝히신다. 신앙은 하느님의 선물이며, 하느님께서 붙어넣어 주시는 초자연적인 덕이다. “이와 같은 믿음이 있으려면 하느님의 도움의 은총이 선행되어야 하며, 성령의 내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성령께서는 마음을 움직이시고, 하느님께로 회개시키시며, 마음의 눈을 열어 주시고 ‘진리에 동의하고 믿는 데에서 오는 즐거움을 모든 이에게 베푸신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153항]

5. 실천계획을 세운다.

6. 기도나 성가로 모임을 마친다.

“하느님, 저를 사랑으로 내시고, 저에게 영혼 육신을 주시어, 주님만을 섬기고 사람을 도우라 하셨습니다. 저는 비록 죄가 많사오나, 주님께 받은 몸과 마음을 오롯이 도로 바쳐, 찬미와 봉사의 제물로 드리오니, 어여빠 여기시어 받아 주소서. 아멘.”

“우리 주 하느님께 권능과 영광, 지혜와 굳셈이 있사오니, 찬미와 감사와 흠숭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느님, 오늘도 저희 생각과 말과 행위를 주님의 평화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아침기도 중에서]

고전 음악을 듣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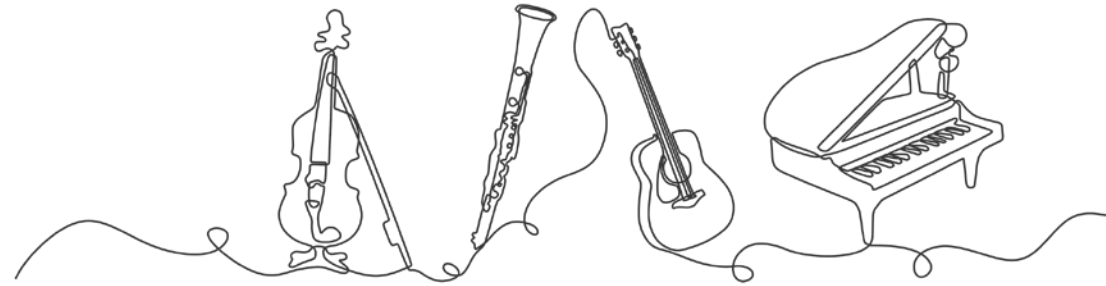
라흐마니노프 (2) -
끝없는 향수병과 피아노 협주곡 3번

조병선 바오로 청주대 법학과 교수

앞서 설명한 것처럼 라흐마니노프는 러시아정교회에서 금지하는 사랑을 하였지만, 가문의 후광으로 가까스로 1902년 4월 29일 나탈리아와 결혼하였다. 딸 둘을 낳아 행복한 가정을 꾸렸지만, 1907년 10월(러시아구력, 실제로는 11월 7일)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났다. 귀족 중에서도 귀족이었던 라흐마니노프 가문이기엔, 라흐마니노프도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게 되었다. 34세의 라흐마니노프는 볼셰비키 집권 3주만에 스웨덴 연주초청을 핑계삼아 단돈 5백 루블과 악보 2개만을 지닌 채로 스톡홀름행 기차를 탔고, 이것은 결국 러시아와의 이별이 되었다.

그는 스칸디나비아를 거쳐, 파리와 드레스덴 그리고 스위스에서 잠시동안 머물렀으나, 생계를 책임진 가장으로서 작곡에 전념할 여유가 없었다. 그렇기에 그 이후, 주로 피아노 연주자로서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러시아를 제외한 전유럽에서 활동하였다. 피아노 연주자로서 혼신의 노력을 기울인 끝에 당대 최고의 피아니스트로 등극하였다. 실제로 라흐마니노프는 역사상 가장 뛰어난 피아니스트의 한사람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후 12년이 지난 그의 나이 45살이던 1918년, 유럽에서의 떠돌이 생활을 청산하고 신흥자본주의의 강국이 되어가는 미국에 정착하였다.

1918년 11월 1일 보스톤 교향악단에서 영구 지휘자로 부임하여 줄 것을 요청받고 미국에 정착한 것이었다. 라흐마니노프가 미국에서의 연주활동으로 인기를 끌자, 보스톤 교향악단은 이미 1910년부터 라흐마니노프에게 구



준히 제안을 하여왔었으나 그때마다 거절하였었는데, 이번에는 그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원래 피아니스트활동에 전념하던 라흐마니노프는 지휘자에 정착하지 않고, 당시의 신생 피아노업체 슈타인웨이의 전속 피아니스트로 비교적 자유로운 연주활동을 하였다.

라흐마니노프는 미국에 정착은 하였지만 귀화는 거부한 채 지내면서, 늘 고향을 그리워하여 미국에 정착한 러시아인들과 어울렸다. 그는 평생 동안 고향 러시아를 잊지 못하는 향수병에 시달렸다. 2차 세계대전 때 고국 러시아가 나치의 침략을 받아 고국을 위한 자선연주회를 열기도 하였다. 이에 스탈린은 라흐마니노프에게 1급에 술가로 대우 할테니 귀국하도록 권유하였지만, 라흐마니노프는 단칼에 거절하였다. 그의 금지된 사랑의 추억이 담긴 이바노프의 여름별장이 혁명의 폭도들에 의해 불타 없어진 볼셰비키 러시아는 그의 고국이 아니었기 때문이리라. 그러나 무슨 연유에서인지 갑자기 1943년 2월 1일, 미국으로 이민한지 25년 만에 비로소 라흐마니노프 부부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였다. 그런데 시민권을 받았던 1943년 바로 그해 2월 17일 녹스빌(Knoxville)의 테네시대학교 체육관에서의 연주가 그의 마지막 콘서트가 되었다. 라흐마니노프는 흑색종(melanoma)이라는 특이한 병으로 만 70세가 되기 나흘 전인 1943년 3월 28일 캘리포니아의 자택 베벌리 힐스에서 사망하였다. 그의 시신은 뉴욕 발할라시 켄시코 묘지에 안장되었다. 그의 장례식 때 생전에 요청했던 대로, 그가 작곡했던 아카펠라 합창곡 '불침번(All-Night Vigil, Op. 37)'이 울려 퍼졌다. 그 후 러시아 정부가 그



Rachmaninov Variations
Daniil Trifonov (piano)
Philadelphia Orchestra, Yannick Nézet-Séguin

Release Date: 28th Aug 2015
Catalogue No: 4794970
Label: Deutsche Grammophon
Length: 78 minutes

의 유골을 모스크바에 안치하겠다고 제의했지만, 유족들에 의해 거절되었다. 금지된 사랑의 주인공이었던 나탈리아는 세르게이가 미국 LA 베벌리 힐스 자택에서 죽을 때까지 해로했으며, 그녀는 1951년에 사망했다.

라흐마니노프가 1918년부터 1943년 죽을 때까지 미국에 거주하는 25년 동안, 그는 주로 피아니스트로 명성을 날렸고 작곡은 겨우 6곡에 그쳤다. ① 피아노 협주곡 4번 g단조 Op.40 (1926), ② 3개의 러시아 노래 Op.41 (1927) ③ 코렐리의 주제에 의한 변주곡 Op.42 (1931), ④ 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랩소디 Op.43 (1931), ⑤ 교향곡 3번 A단조 Op.44 (1936), ⑥ 교향적 무곡 Op.45 (1940)의 6곡이 전부였다. 당시 피아니스트로서의 명성은 하늘을 찌를지만, 그에 비해 작곡가로서의 평가는 미미한 편이었다. 그가 러시아를 떠나면서 그의 음악적 영감도 떠나버렸던 탓일까? 그러나 ‘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랩소디 Op.43 (1931)’은 파가니니의 독주 바이올린 카프리스 24번 A단조 Op. 1-24에 기반하여 24개의 변주로 이루어져있는데, 그의 대표적인 말년작이다. 초연은 1931년 11월 7일에 볼티모어에서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와 본인의 연주로 이루어졌다. 라흐마니노프가 작곡한 5개의 피아노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협주곡 중 가장 마지막 작품이며, 미국 망명 후 작곡했던 또 다른 작품인 ‘피아노 협주곡 4번’에 비해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다. 그러나 미국에서의 작곡은 아닐지라도, 당시 연주 중 가장 주목받을 만한 곡은 ‘피아노 협주곡 3번 d단조 Op.30 (1909)’이었다. 라흐마니노프가 볼세비키 혁



Mozart: Piano Concerto No. 23 & Rachmaninov: Piano Concerto No. 3
Grigory Sokolov (piano)
Mahler Chamber Orchestra, BBC Philharmonic Orchestra, Trevor Pinnock, Yan Pascal Tortelier

Release Date: 10th Mar 2017
Catalogue No: 4797015
Label: Deutsche Grammophon
Length: 71 minutes

명으로 러시아를 탈출한 1907년 11월 이후, 거의 2년 후인 1909년의 여름과 가을에 집중하여 작곡해서 1909년 9월 23일 완성한 그의 세 번째 피아노 협주곡이다. 이 곡이 작곡된 후, 라흐마니노프는 이 곡을 그의 친구이자 당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인 요제프 호프만에게 헌정했으나, 호프만은 자신을 위한 곡이 아닌 것 같으며 연주하지 않았다. 아마도 라흐마니노프의 손이 워낙 큰 만큼 그의 작품이 화성의 폭이 워낙 넓기에, 호프만은 손이 워낙 작아서 연습하기 난감했을 것이라고 추측이 되고 있다. 당시 유럽에 체류하던 라흐마니노프는 초연은 미국에 가서 했는데, 당시 스케줄이 너무 빡빡해서 미국으로 가는 여객선 안에서 소리 없는 건반으로 연습하였다고 전해진다. 두 번째 공연은 1910년 1월 16일에 있었는데, 그때 지휘자가 오늘날에는 교향곡 작곡가로 더 유명한 당대의 명지휘자 구스타프 말러였다. 만일 이 연주 녹음이 남아있었다면 하는 상상을 해본다. 아마도 ‘세기의 연주’를 넘어 그야말로 클래식 역사상 ‘드림팀의 최고의 연주’로 남게 되었을 것이리라.

우리나라에서도 18세의 어린 나이에 반클라이번 콩쿠르에서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3번으로 최연소 우승을 차지한 임윤찬의 등장으로 난해한 이 곡이 갑자기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이 작품의 연주를 들어보면, 피아니스트는 다른 작품에 비하여 수많은 음표들을 연주하고 있지만, 너무 음표가 많기에 오히려 대부분이 들리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그 이유로는, 일단 악보에 쓰여진 음표는 정말 많은데, 그중에 메인 멜로디가 1이라면 그를



Rachmaninoff: Piano Concertos
Peter Rosel (piano), Dresdner Philharmonie, Kurt Sanderling

Release Date: 3rd Mar 2023
Catalogue No: 0302949BC
Label: Berlin Classics
Length: 164 minutes

뒷받침하는 음표는 9정도로, 그 비율은 거의 1:9라고 보면 된다. 예를 들면, 3악장이 시작되는 초반부에서 메인 멜로디를 또렷하게 들리게 하면서 나머지 9배나 많은 음표들은 그저 풍성하게 메인 멜로디를 감싸도록 연주해야 한다. 그리고 가볍게 3-4도를 두세 번 누르는 듯한 부분에서도 연타에다가 손을 넓게 벌려 9도 도약까지 해야 하니, 악보를 실제로 본다면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 오케스트라가 이를 감싼다면 어떻게 치던 그 소리에 흡수될 수도 있지만, 피아노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야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실력은 드러나기 마련이다. 또한 원래 피아노라는 악기 자체가 오케스트라와 같이 나오는 부분에서도 다른 악기에 비해 돋보이지 않기 때문에, 강한 타건으로 쳐도 청중에게 들리지 않는 경우도 많다. 만일 피아노가 또렷하게 들린다면, 이것은 실연이 아니고, 녹음하면서 피아노 파트가 더 잘 들리도록 마이킹 등 후작업이 들어갔기 때문이다.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3번에서 유독 이런 현상이 심하기 때문에, 실연에서도 빛나는 임윤찬의 명징한 피아노 소리가 주목을 받는 이유가 된다. 라흐마니노프는 이바노프카의 별장에 불을 지른 러시아를 탈출한 직후에 피아노 협주곡 3번을 작곡을 해서인지 불안과 걱정이 교차하는 듯 불규칙한 속주 구간이 자주 등장한다. 스케일 연습 때처럼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게 아니라, 구성음이 제멋대로라고 할 정도로 불규칙적으로 바뀐다. 손가락 사이가 장3도와 단3도를 불규칙적으로 섞어 놓고, 11도(예컨대 라-레-파#-레)나 심지어 12도에 달하는 분산화음 아르페지오가 나와서, 불편하더라도 그 음렬의 진행상 손가락 번호



Rachmaninov: Symphony No. 3 & Symphonic Dances
Philharmonia Orchestra, Vladimir Ashkenazy

Release Date: 21st Sep 2018
Catalogue No: SIGCD540
Label: Signum
Series: Philharmonia Orchestra
Length: 77 minutes

를 마음대로 바꿀 수도 없다. 아무튼 예를 들어, 새끼손가락으로 음 하나를 훑당한 채, 나머지 손가락으로 6도를 쳐야 한다면 어떻겠는가? 거의 미쳤다고 할 정도의 도약과 연속적인 풀코드(Full-Chord)를 진행한다면, 손이 만약 도에서 다음 옥타브의 미까지 한 번에 닿지 않을 정도로 작으면 풀코드 자체에 기대되는 튼튼한 소리를 낼 수가 없다. 이는 지난 호의 피아노 협주곡 2번의 처음 종소리에서도 조금 설명하였었다. 오케스트라의 총주 속에서도 뚫고 나와야 하는 피아노 솔로는 마치 바그너 니벨룽의 반지에 왜 마치 스모선수처럼 거대한 체구의 성악가(특히 '바그너 가수'라고 칭함)가 필요한지와 동일한 이유로, 체력도 강해야 한다. 라흐마니노프 본인 스스로도 이 곡을 초연한 후에 "내가 왜 이런 (기교적으로 어려운) 곡을 작곡했는지 모르겠다."라는 말을 남겼다고 전해진다.

라흐마니노프의 4개의 피아노 협주곡 중 2번과 3번이 압도적으로 대중성이 높아서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미국에 정착하여 작곡한 피아노 협주곡 4번 g단조 Op.40 (1926)도 있다. 라흐마니노프가 마지막으로 작곡한 피아노 협주곡이 되었다. 1926년에 곡이 완성되었고, 1927년에 라흐마니노프 본인의 연주로 필라델피아에서 초연되었다. 다른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과 비교해보면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조성이 상당히 애매하다. 아마도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미국의 작곡가 조지 거슈윈의 영향으로, 부분적으로 재즈의 영향이 곳곳에서 드러난다. 곡의 색채가 어딘가 모

르게 기묘해지면서 이로써 이전까지 보여주던 친숙한 멜로디와 같은 느낌도 줄어들었다.

이번 호에서는 주로 ‘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랩소디’와 ‘피아노 협주곡 3번’으로 전 호의 ‘피아노 협주곡 2번’ 이후의 떠돌이 생활의 라흐마니노프의 작품을 소개하였는데, 결국 라흐마니노프의 음악을 관통하는 주제에는 크게 종교(종소리)와 우울증(죽음), 그리고 러시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라흐마니노프 스스로가 어렸을 때 정교회의 예배나 니주니-노브고로드 성당에서 들었던 종소리에 영감을 받았다고 했었고, 그의 작품들 대부분이 - 피아노협주곡 2번 1악장의 도입부 특유의 피아노 타건과 **합창교향곡 ‘종’ Op.35 (1913)** - 에서 종소리가 들린다. 합창교향곡 ‘종’은 각 악장마다 금중(환희), 은중(결혼), 동중(공포), 쇠중(죽음)을 묘사한 합창 교향곡인데, 에드거 앨런 포가 쓴 동명의 시를 기반으로 하였다. 이 곡의 2악장(은중)의 중심을 이루는 소프라노 독창은 자신의 금지된 사랑을 극복한 결혼을 염두에 두어서인지 얼마나 아름답다운지 모르지만, 반대로 마지막 악장(쇠중)은 장례식의 종소리로 죽음을 연상시킨다. 김연아의 영원한 라이벌이었던 아사다 마오가 피겨 프로그램에 사용해서 유명해진 **‘전주곡 Op.3-2 c#단조 (1892)’**에도 교회의 종소리와 정교회의 엄숙함이 짙게 묻어나온다. 그래서 ‘모스크바의 종’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다. 라흐마니노프가 모스크바 음악원을 졸업한 다음 해 젊은 시절 작곡했던 ‘환상소품집’이라는 제목 안의 5곡 중의 하나였던 이 곡은, 당시 굉장한 인기를 끌어 라흐마니노프의 연주회 때마다 청중들이 연주해주길 원했고, 결국 라흐마니노프는 반복되는 연주 끝에 결국 이 곡에 싫증이 날 정도였다고 한다. 참고로 라흐마니노프의 전주곡(Prelude)는 한 작품에 모여 있지 않고, Op.3에 한 곡, Op.23에 열 곡, Op.32에 열세 곡으로, 바흐의 평균율 클라비어 곡집이나 쇼팽의 전주곡집(Op.28)처럼 각각의 조성별로 총 24곡으로 되어 있다. Op.23의 10개의 전주곡(1903)은, 라흐마니노프가 자신의 첫째 딸 이리나의 출산을 기다리며 작곡에 전념했는데, 특별히 이리

나가 태어난 날 전주곡의 6번째 곡에 라흐마니노프는 ‘때 묻지 않은 순수함과 더없이 행복한 만족의 소우주(a microcosm of wide-eyed innocence and blissful contentment)’라는 부제를 붙였다. Op.32의 13개의 전주곡(1910)으로 전주곡 24곡이 완성되었다. 바흐와 쇼팽처럼 조의 순서를 규칙적으로 구성하지 않고, 라흐마니노프는 몇 곡만 나란한 조나 같은 으뜸음 조끼리 묶은 것 외에는 그다지 규칙성에 구애받지 않았는데, 그의 자유로운 성품을 엿볼 수 있다. 이 때문에 피아니스트들은 Op.3 중 프렐류드만 따로 떼어와서 Op.23, Op.32와 함께 전집으로 녹음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의 마지막 작품이 되고만 **‘교향적 무곡 Op.45 (1940)’**에서는 러시아 특유의 서정성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다. 라흐마니노프의 우울증과 금지된 사랑의 가장 힘든 시기를 지나, 1901년의 피아노 협주곡 2번으로 우울증을 극복하고, 드디어 1902년 금지된 사랑의 결실을 맺어 결혼하면서 작곡한 12개의 **노래 Op.21 (1902)**는 그래서 **‘12개의 로망스(romance)’**라는 부제로 불리며, 이바노브카의 추억이 깃든 제5곡 ‘라일락(Lilacs)’이 늘 새삼스럽다. 또한 러시아를 탈출한 후 작곡한 14개의 **노래 Op.34 (1912)**의 마지막 곡 ‘보칼리제’는 러시아를 향한 애닦은 애상으로 얼마나 감미로운지! 그러나 다른 한편 라흐마니노프는 그의 많은 작품에 러시아 정교회의 그레고리안 성가에 등장하는 ‘진노의 날(dies ire)’의 동기를 모티프로 사용한다. 그의 피아노 소나타 1번, 피아노 협주곡 2번, 3번, 파가니니의 주제에 의한 랩소디, 전주곡 Op.32 4번, ‘죽음의 섬 Op.29 (1908)’, 교향곡 3곡 전부, 마지막 ‘교향적 무곡’에서 이 동기를 사용하였고, 특히 ‘죽음의 섬’과 ‘교향적 무곡’은 아예 이 동기를 주선율로 삼아 곡을 완성시켰다. ‘죽음의 섬(Isle of the Dead)’는 화가 뷁클린(Arnold Böcklin, 1827-1901)의 동명의 그림을 보고 영감을 받아 1908년(35세)에 작곡하였다. 라흐마니노프의 이러한 이중성은 우리의 삶도 돌이켜보면 다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이중성이 아닐까? 🍷

함께 읽는 세계 문학 - 중남미 문학의 숲을 걷다

라틴아메리카 현대 문학 동향

정경원 아오스딩_한국의국어대학교

1. 총체적 얼굴 만들기 - 붐 소설

1959년 카스트로의 쿠바혁명 성공 이후,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라틴아메리카의 정체성을 되찾는 움직임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문학 분야에서도 예외 없이, 라틴아메리카의 총체적 얼굴 찾기가 문인들 사이에 화두가 되었다. 당시 라틴아메리카 문단의 경향은 크게 세 가지로 특징지어진다.

첫째, 라틴아메리카의 정체성 정립. 둘째, 긍정적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혁명과 유토피아의 추구. 셋째, 문학적 기반을 이루는 라틴아메리카 언어의 조탁이다. 이렇게 희망적인 역사의식과 신대륙의 경이로움을 토대로 붐 소설이 탄생된다. 정체된 언어의 세계에 독자를 초대해 라틴아메리카만의 환상적 미학을 총체적으로 창출해 내는 것이다. 여기에는 현실과 픽션, 참여와 순수, 내용과 형식, 그리고 리얼리즘과 모더니즘이 잘 어우러지고 있다. 다시 말해서 라틴아메리카의 붐 소설은 이미 소진된 구대륙의 언어에 생기를 불어넣으며 자기들의 역사와 언어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라틴아메리카 문학은 세계 문학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고, 마침내 가르시아 마르케스(1928~)는 『백년간의 고독』(1967)으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 소설은 기존의 사실주의의 틀을 버리고 신화와 환상의 세계가 혼재하는 소위 “마술적 사실주의”의 전형적인 특성을 보여주는 가장 라틴아메리카적인 작품이다. 현실과 환상이 중첩되는 세계는 다름 아닌 중남미 현실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백년간의 고독』은



영혼의 집
이사벨 아옌데 저 | Plaza & Janés | 1982

“마술적 사실주의” 진수를 보여주는 작품이다. 환상, 경이로움, 신화, 꿈, 신비 등의 요소들이 기존의 사실주의 텍스트에 익숙한 독자들에게는 큰 충격이었다. 호세 아르카디오의 환상세계, 대홍수, 미녀 레메디오스의 승천, 하늘에서 떨어지는 노란 꽃비, 돼지 꼬리를 단 아이, 망각의 전염병 등은 인간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황을 대변해 준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이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고자 상상의 세계를 펼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독자들에게 이러한 환상적 사실들이 처음에는 충격을 주면서도 동시에 독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총체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

1972년 쿠바 시인 에베르토 빠디아가 카스트로 정권에 의해 체포되는 “빠디아 사건”은 문인들의 활동을 크게 위축시키며 출판시장까지 불황으로 빠져든다. 이후 군사독재가 라틴아메리카 대륙에 횡횡하게 되며, 붐 소설의 낙관적인 역사의식은 의미가 퇴색돼 혼돈의 시대로 치닫는다.

이와 함께 일련의 포스트 붐 소설들의 문인들을 중심으로 일부 지식층을 위한 엘리트즘, 형식에 대한 지나친 집착, 그리고 중남미 현실에 대한 인식 부족 등의 이유를 들어 붐 소설에 대한 강력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여하튼 붐 소설은 현실에 대한 냉철한 비판을 완성하지 못한 채 언어를 통하여 총체적인 해결을 추구하였던 점이 한계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2. 천박한 얼굴로- 포스트 붐 소설

포스트 붐 세대의 작가들은 엘리트주의를 경계하며 플롯보다는 스토리 (storytelling)를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선회한다. 복잡한 이중 구조의 구성은 사라지고 단순하게 현실을 묘사하여 전달한다. 따라서 일상어를 있는 그대로 현장감을 살려, 글쓰기 작업을 함으로써 자연스러워지는 효과를 거두었지만 또 그만큼 피상적이고 천박하기도 하다. 이들은 붐 소설 작가들을 포함한 기성세대 작가들에 대해 냉소적이고 유머러스한 태도를 견지한다. 사물에 대한 인식이 전통보다는 일회적이고 이미지적이며 유희적인 면이 부각되면서 근엄한 저자의 목소리도 사라지고 전형화된 인물도 중요하지 않게 된다.

칠레의 이사벨 아옌데(1942~)는 이 시대의 대표적인 작가로서 처녀작인 『영혼의 집』(1982)은 그녀를 세계의 작가 반열에 올린 작품이다. 이 작품은 마르케스의 『백년간의 고독』과 비교되는 작품이다.

먼저 공통점은 두 작품은 몇 세대에 걸친 가족사들 다룬 것들이다. 『백년간의 고독』이 백년간에 걸친 부엔디아 가문의 역사라면 『영혼의 집』은 70년에 걸친 델 바예 가문의 이야기이다. 또한 두 작품은 실제로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들을 바탕으로 전개되면서 당시의 폭력적인 사회상을 묘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그러나 『백년간의 고독』은 쿠바 혁명의 성공 후에 혁명을 낙관주의적으로 그리는 작품인 반면에, 『영혼의 집』은 1973년 아옌데의 사회주의 정권의 몰락 후 나온 작품으로서 역사적 희망이 사라진 분위기를 담은 작품이다. 두 작품의 차이점은 문체 면에서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 붐 세대의 소설가들은 중남미 현실을 환상, 신화, 신비, 꿈 등 모든 요소가 융합되어 현실과 환상을 교차시켜 현실을 재현하는 언어의 총체성을 구현하였다. 이에 반해 이사벨 아옌데의 작품은 복합적인 구조를 구현하는 작가의 책략이 배제된 채 독자들에게 단순한 스토리 전달 위주로 전통적인 리얼리즘방식을 견지한다.

3. 중남미 울타리를 벗어난 얼굴 - 맥콘도와 크랙 세대

최근의 라틴아메리카의 젊은 작가들은 붐과 포스트 붐 소설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그들만의 독자적인 창작활동을 시도하고 있다. 1996년 칠레의 알베르도 푸켓(1964~)과 세르히오 고메스(1962~)는 1960년대 이후 출생한 중남미 작가들의 작품을 모아 ‘맥콘도’(McOndo)라는 제목의 선집을 출판한다. 이를 계기로 ‘맥콘도’(McOndo)그룹이 형성된다. 맥콘도는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마콘도(Macondo) 마을을 패러디 함으로써 마술적 사실주의의 안일한 엘리티즘을 겨냥한 것이다. 그리고 6명의 멕시코 젊은 작가들인 이그나시오 빠디야(Ignacio Padilla), 호르헤 볼삐(Jorge Volpi), 엘로이 우로스(Eloy Urroz), 비센떼 에라스띠(Vicente Herrasti), 리카르도 차베스 가스파네다(Ricardo Chavez Castañeda) 그리고 빠드로 앙헬 빨로우(Pedro Angel Palou)는 “크랙”(쪼개짐, 균열) 선언문에 서명했다. 표면적으로 붐 소설의 선배 작가들을 배척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지만 라틴아메리카 “붐 boom” 소설의 추종자들과 붐 소설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글을 쓰는 것을 거부하며 사실상 붐 소설식 글쓰기 작업을 거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크랙 세대들은 향후 라틴아메리카문학의 세계화를 위해 라틴아메리카라는 울타리를 넘어 세계로 향하고 있다. 📖



신앙인의 영화 보기와 세상

전쟁은 시작도 마침도 결코 아름답지 않다.

정현영 요셉 신부_사목국 상설교회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나와서 산 위, 주님 앞에 서라.’ 바로 그때에 주님께서 지나가시는데,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할퀴고 주님 앞에 있는 바위를 부수었다. 그러나 주님께서서는 바람 가운데에 계시지 않았다. 바람이 지나간 뒤에 지진이 일어났다. 그러나 주님께서서는 지진 가운데에도 계시지 않았다. 지진이 지나간 뒤에 불이 일어났다. 그러나 주님께서서는 불 속에도 계시지 않았다. 불이 지나간 뒤에 조용하고 부드러운 소리가 들려왔다.”(1열왕 19:11-12)

전쟁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 결과는 지난 세기 양차 세계대전을 비롯한 수많은 전쟁이 앞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도 전쟁은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고 반복된 비극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습니다. <서부 전선 이상 없다(All Quiet on the Western Front, 2022)>는 전쟁(제1차 세계대전)에 나선 한 젊은이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죽음으로 끝난 이야기의 처음은 그렇게 어둡지 않았습니다. 전쟁

에 자원하는 그들의 모습은 누구보다 활기차고 웃음이 가득한, 말 그대로 젊은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최전선에 서면서 모든 상황이 바뀌고 그들의 표정도 바뀌게 됩니다.

제1차 세계대전은 참호전이라고 알려진 작전이 광범위하게 사용됐습니다. 말 그대로 땅을 파고 그 안에 참호를 만들어서 적군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참호 아래에는 각종 방과 길들이 만들어졌고, 참호 위로는 수많은 화기를 설치해서 적의 침입에 대비했습니다. 양측이 모두 이런 구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두 진영 간의 전투는 결국 백병전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호 안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안전했지만 그것으로 전투에 승리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1차 세계대전이 벌어졌던 5년 동안에 900만 명이 넘는 군인들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쟁의 비극적 운명을 미리 예견이라도 하는 것처럼, 영화는 처음부터 참호에서

지상으로 나와 죽어가는 무수히 많은 병사들의 모습과 그들이 입고 쓰던 옷과 신발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재활용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붙어있었던 명찰은 전쟁에 지원하는 새로운 병사에게 군복이 전달되면서 비로소 떨어져 나갑니다. 영화는 전쟁에 동원되는 군인들이 죽은 병사들의 옷이 기워지고 세탁 되서 새로운 명찰을 달고 지급되는 것처럼 소모품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전제로 한 아수라로 젊은이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들을 유혹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은 애국심에 호소하기도 하고, 우정과 사랑 뒤에 숨기도 하며, 일그러진 얼굴을 감추고 매력적인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기성세대(교수)는 군대에 자원하는 제자들을 위대한 세대라며 추켜세우고, 그렇게 선동 당한 수많은 젊은이들과 함께 주인공인 폴은 마치 여름캠프에 가는 것처럼 들뜬 마음으로, 허락하지 않는 아버지의 서명을 위조하면서까지 친구들과 함께 입대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훈련이 끝나고 최전선으로 가는 첫날부터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던 것과 현실의 차이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습니다. 도중에 그들이 타고 있던 트럭은 부상병을 태우기 위해서 징발되고, 그들은 걸어서



서부 전선 이상 없다
(All Quiet on the Western Front), 2022
드라마 | 독일 | 147분



나머지 길을 가야했습니다. 행군만으로도 힘들었던 그들은 폭격을 피해야 했고, 방독면까지 써야 했습니다. 그리고 참호에 도착해서는 내리는 비 때문에 차오르는 물을 퍼내야 했고, 손은 금방 얼어버렸습니다. 포화 속에서 불안한 밤을 보낸 폴에게 처음으로 주어진 임무는 죽은 병사들의 인식표를 수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수많은 시체들 사이에서 진창에 처박혀 있는 친구를 찾았지만 애도할 시간조차 갖지 못합니다.

영화는 전쟁의 유산이 어떻게 미래세대까지도 가혹한 상처를 남기는가를 보여줍니다. 폴은 전투 중에 폭격으로 생긴 구덩이 안에서 프랑스 군인을 만나게 되는데, 어쩔 수 없이 그를 죽이게 됩니다. 폴은 비록 적에게 발각되지 않기 위해서 그를 칼로 찔렀지만, 죽어가는 그 병사를 위해서 지혈을 하고 물을 먹입니다. 하지만 그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병사는 죽게 되고, 폴은 그의 품에서 뒤발이라는 그의 신분증과 함께 가족사진(아내와 딸)을 발견합니다. 죽어간 병사들은 누군가의 남편이고 아버지이며 아들이었음을, 그리고 그들의 죽음은 가족들에게 평생의 상처를 남길 것입니다.

또한, 전쟁이 끝났음을 알게 된 후에, 그들은 마지막으로 근처 농가로 들어가 거위를 훔치기로 하는데, 그 와중에 폴과 마지막까지

함께 했던 전우인 카트가 총에 맞습니다. 그를 쏜 사람은 농가 주인의 아들이었습니다. 열 살 정도밖에 되어 보이지 않는 소년은 벗어났다고 생각한 두 사람을 끝까지 쫓아와서 결국에는 카트를 쏘았습니다. 카트를 병원으로 데리고 가던 폴은 지나가던 트럭을 세우려고 하지만 전쟁이 끝났다고 흥분한 이들에게 폴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그 전쟁이 일으킨 죽음의 그림자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소년의 가슴까지도 얼어붙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1930년도에 만들어진 <서부 전선 이상 없다>에서 병사들은 이 전쟁이 왜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떤 병사가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도발해서 전쟁이 일어난다고 말하자, 다른 병사는 독일의 산이 프랑스의 들판에게 화가 났느냐고 반문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전혀 도발당한 느낌이 들지 않으니 그냥 집에 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는 영국인 자체를 처음 보기 때문에 영국인을 쓰기 싫다(전쟁이 싫다)고 이야기합니다. 전쟁으로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왕이나 장군, 공장 주인 등이니, 전쟁은 넓은 들판에 밧줄을 두르고 표를 팔고서 왕과 신하와 장군들을 속옷만 입혀서 중간에 몰아넣고 곤봉으로 싸워 거기에서 이긴 나라가 이긴 것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2022년의 영화에서는 계속해서 정전협상을 하고 있는 프랑스와 독일의 대표들을 보여줍니다. 더 이상의 희생을 막고자 하는 독일 대표의 노력은 무조건적인 항복을 요구하는 프랑스와, 굴욕적인 항복이라 여겨 자존심을 세우려고 하는 독일 군부 사이에서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리고 이런 독일 군부의 태도는 협상이 이루어진 후에도 남은 병사들을 사지로 몰아넣습니다. 11시면 협정이 발효되는데, 불만을 품고 있던 한 지휘관이 마지막으로 라티에르를 차지하기 위한 공격을 감행합니다. 15분을 남기고 시작된 전쟁에서 결국 폴은 죽음을 당하고 맙니다.

엘리야는 카르멜산에서 바알 예언자들과 홀로 대결을 벌입니다. 황소를 잡아 제단을 차려놓고 기도해 불로 응답하는 신이 이기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 대결에서 승리했고 패배한 바알의 예언자 사백오십 명은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이제벨은 엘리야를 죽여 복수를 하겠다고 다짐합니다. 또, 이 사실을 알게 된 엘리야는 두려움에 도망을 칩니다. 밤낮으로 사십 일을 걸었다니 두려움의 크기를 알만 합니다.

그렇게 해서 도착한 하느님의 산 호렘의 어느 동굴에 숨었습니다. “여기에서 무엇을 하

고 있느냐?”하는 하느님의 물음에 엘리야는 “저는 주 만군의 하느님을 위하여 열정을 다해 일해 왔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당신의 계약을 저버리고 당신의 제단들을 헐었을 뿐 아니라, 당신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 죽였습니다. 이제 저 혼자 남았는데, 저들은 제 목숨마저 없애려고 저를 찾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는 바알과의 대결을 거룩한 전쟁(聖戰)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엘리야가 동굴 앞에 섰을 때, 바람과 지진과 불이 일어났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모세가 시나이산에서 하느님을 만났던 장면과 유사합니다. 그곳은 “우렛소리와 불길과 뿔 나팔 소리와 연기에 싸인 산”(탈출 20,18)이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그 모든 것 안에서 하느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조용하고 부드러운 소리” 안에서 하느님을 만났습니다. 하느님과 함께 했던 전쟁이었지만 그에게는 두려움만 남았습니다. 하물며 추악한 욕심에 가득 찬 전쟁이 오죽하겠습니까! 🗣️



신앙의 땅, 이스라엘을 거닐다

성지에서의 또 다른 하루 - 예루살렘(6), 엠마오, 벳 지말

심연선 소화테레사_ 이스라엘 전문 여행 가이드

통곡의 벽에서 서쪽의 야포 문이 있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두 곳에 문이 있는데 통곡의 벽을 등지고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곳에 있는 문은 무슬림 지역으로 이어지는 문이고, 왼쪽으로 이동하는 곳의 문은 유대인 지역으로 이어지는 문입니다. 우리는 무슬림 지역으로 이어지는 문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루살렘 구도시 내부의 모습은 비잔틴 시대 때 큰 틀이 잡힌 것이고, 십자군 시대 때에 기본이 만들어지게 되었으며, 오스만 투르크 때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느 나라의 재래시장과 다른 모습은 눈앞에 펼쳐집니다. 골짜기 올라가면 북쪽 다마스쿠스 문으로 이어지고, 왼쪽으로 올라가면 서쪽 야포문으로 이어집니다. 야포문 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오, 이곳은 미로입니다. 시장은 여기고 저기고 다 비슷하게 생겨서 보통 헛갈리는 것이 아닙니다. 길을 잃었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거의 대부분의 시장 상인들은 영어를 구사할 수 있

습니다. 원하시는 곳을 물어보시면 친절하게 가르쳐줍니다.

언덕으로 되어있는 돌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아르메니안 지역이 나옵니다. 이곳에 아름다운 아르메니안 스타일의 도자기 상점들이 있어 눈을 즐겁게 합니다. 계속해서 서쪽으로 이동하여 야포문에 도착합니다. 왼쪽에 큰 건물이 보이는데 이것은 현재 박물관으로 사용되는 '다윗탑(Tower of David)'입니다. 이곳으로 가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역사박물관인 이곳의 내부는 중세 시대의 성채 모양과 비슷합니다. 이 모양은 앞서 말씀드린 무슬림 지배 후반인 맘룩, 오스만 투르크 시대 때에 완성되었다고 합니다. 이름과 같이 탑들의 흔적이 보입니다. 가장 큰 탑은 하스모니안 시대 때의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기원전 2세기의 건축물이니, 약 2천 2백 년 동안 자리를 지키고 있었네요. 전 세계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다시 오게 된 궁극적인 이유! 예루살렘! 이 고고학 사이트 전부가 예루살렘의 역사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윗의 도시, 통곡의 벽 근처 박물관들과 마찬가지로 이곳도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기에 한번 가보시기를 적극 추천합니다. 밤에는 '빛과 소리 공연(Sound and Light Show)'이 있는데 인터넷 사이트에서 미리 예매하셔야 관람할 수 있습니다.

아이돌 그룹 BTS 덕분에 지구상의 소녀들이 한국에 관심이 아주 많아 졌는데요. 이스라엘 또한 그렇습니다. 이 다윗탑 근처에 '베돌 라면(라면의 집)'이라는 라면집이 생겨서 아주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시간이 되면 방문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매일 영업하는 분식집이 아니라 한류를 널리 알리는 목적의 무상 라면집이라고 하니 오픈시간을 잘 알아보고 가셔야 합니다. 더불어 한국음식을 파는 식당도 최근에 유대인지역에 하나 생겼다고 합니다.

다윗 탑을 지나서 그리스도인 구역 쪽으로 이동합니다. 예루살렘 인포메이션 센터가 있고, 작은 골목길을 따라 들어가면 예루살렘 관구가 있습니다. 그 안에 라틴 예루살렘 co-





↑ 다윗탑



↑ 다윗탑빛소



↑ 벳지말 수도원 성당

주교좌성당이 있는데 신 고딕 양식으로 되어 있는 아름다운 성당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첫 고백을 했었는데, 고딕 성당이 주는 경건함 안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했던 것이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작은 골목길을 따라 북쪽으로 올라가면 새 문(New Gate)이 나오고 길 건너편에 노트르담 순례자 숙소가 보입니다. 예루살렘 중심을 지나가는 트램도 보입니다. 트램길을 따라 다마스쿠스 게이트 쪽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예전에 말씀드린 에콜 비블리끄라고 하는 도서관 근처에 정원무덤(Garden Tomb)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영국령입니다. 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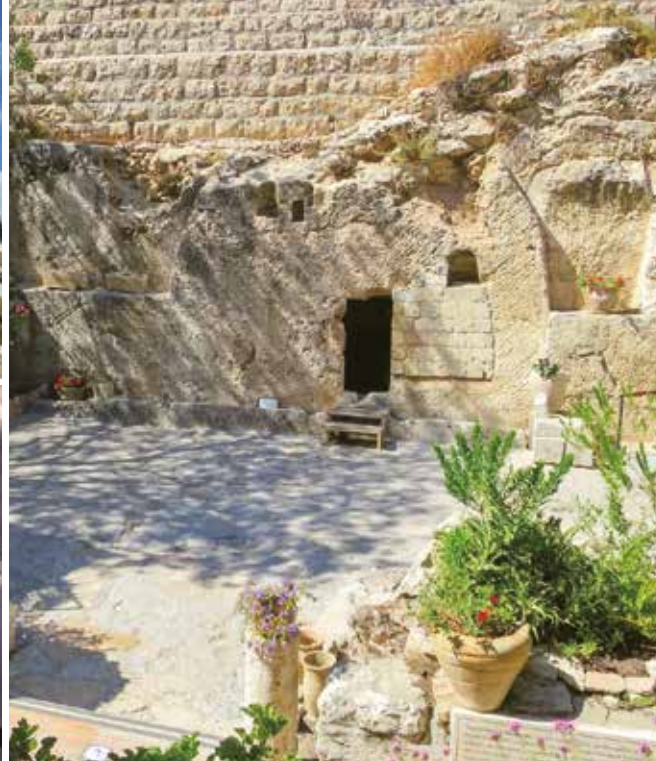
국령이라고 하니 가톨릭과는 뭔가 거리가 좀 있어보이죠? 예 맞습니다. 이곳은 개신교 일부 신자들이 주장하는 주님 무덤입니다. 찰스 고든이라는 영국군 장군이 현재 있는 주님 무덤 성당이 예수님의 진짜 무덤이 아닐 것이라는 의혹에서 시작합니다. 그가 주변 지역을 열심히 찾아보던 결과, 해골(골고타)이라고 불리는 곳을 만나게 되었고 실제로 해골 모양의 바위가 있었으며 놀랍게도 그곳에 무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그가 얼마나 기뻐하고 놀라워했을까요? 하지만 고고학자 가브리엘 바르카이 박사에 의해, 이곳은 기원전 7-8세기의 무덤임이 밝

혀집니다. 즉 예수님 시대 때보다 훨씬 이전의 무덤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다른 신념을 가진 사람들은 여전히 이곳이 주님 무덤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특별히 주님 무덤 당에서 전례를 하지 못하는 개신교인들은 부활절에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는 합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아니지만 그래도 이곳에 오면 무덤 성당에서 느낄 수 없는 것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주님 무덤 성당은 로마 박해시대 때부터 그 원래 모양을 알아보지 못하게 만들었고, 헬레나 성녀에 의해 재발견되어 장엄한 성당이 세워졌기 때문이죠. 그에 비해 이곳은 무덤입구를 막는 돌을 비롯해 무

덤의 모양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예수님 시대를 이해하기에 큰 도움을 줍니다. 고즈넉한 정원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가만히 앉아 묵상하기에도 좋은 곳입니다. 한번쯤 가보아도 괜찮을 곳입니다. 예수님 무덤을 나왔으니 엠마오로 내려가겠습니다. 지난번에 간략히 말씀드린 여러 가지 후보지 중에 아부 고쉬에 있는 몬테 올리베따노 베네딕토 수도원으로 향합니다. 수도원 뜰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프랑스 수도원자들이 있어서 그런지 프랑스 수도원 분위기가 물씬 납니다. 이곳에도 피정하는 프랑



↑ 벳지말 수도원
↓ 아부고쉬 미사



↑ 정원무덤



↑ 정원무덤골고타

스 신자들도 보입니다. 성당은 육중한 두께의 벽으로 이루어진 십자군 시대 건물입니다. 예루살렘 성 안나 성당처럼 이곳도 울림이 아주 좋습니다.

몬테 올리베타노 수도자들이 미사를 바칠 때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신부님, 수녀님, 수사님들이 함께 나와 미사를 노래로 바치는데, 솔렘 수도원에서 느꼈던 것 그대로가 느껴집니다. 그 거룩하고 고결한 느낌은 표현이 불가능합니다. 단체 순례 때 참여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지만 개인적으로 여행하실 때 미사 시간을 잘 알아보고, 그곳에서 미사를 드리시면 너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성물방에

서 수도자들이 녹음한 성가 CD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벳 지말에 있는 살레시안 수도원을 가보겠습니다.

벳 지말은 '지말의 집'이라는 뜻인데, 유명한 랍비 가말리엘 이름에서 온 것이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40km 정도 떨어진 쉘펠라 지역 언덕에 아름답게 자리잡고 있는 수도원입니다. 이곳은 첫 번째 순교자 스테파노 성인의 무덤이 있는 곳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올리브나무가 우거진 언덕을 따라 올라가면, 이스라엘이기 보다는 유럽에 가까운 풍경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살레시안 수도원이어서 그런지 어린이들, 청소년들이 종종 눈에 띕니다.

안쪽으로 들어가면 아름다운 프레스코화와 모자이크로 장식된 아담한 성당이 있습니다. 스테파노 부제와 관련된 장식입니다. 이스라엘 지역 내에 있는 여느 다른 성당과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만, 은은하게 느껴지는 거룩함은 동일합니다. 나무의자에 앉아 조용히 묵상해봅니다.

이스라엘을 순례할 때는 지도신부님과 순례자들이 매일 미사를 봉헌하는데, 대부분이 프란치스코회 관할의 성당에서 드리십니다. 그

때 사용하는 미사주가 이곳에서 생산하는 살레시안 수도회 포도주입니다. 수도원 입구 매점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수도자가 직접 만든 올리브유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정원 무덤, 수도원의 공통점은 나무가 많고 고즈넉한 분위기라는 것인데 자연의 숲이 아닌 인공적인 정원이지만 나무들이 주는 편안함이 마음을 세상에서 잠시 멀어지게 도와줍니다.

성지 이스라엘의 수도원 틀을 거닐며 세상에서 쌓인 먼지들을 잘 털어내고 깨끗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다시 발걸음을 떼어 봅니다. 🌿

정원이야기

최초의 정원 에덴동산

황주영 레지나_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 객원연구원



마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주님을 찾습니다. 기도를 올리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이야기를 나누지요. 그리고 저는 정원을 찾습니다. 조용히 걷고, 생각합니다. 아니 쉴 새 없이 쏟아지는 생각을 멈추어 보려합니다. 정원에서 걸음은 점차 느려지고 가쁜 숨도 가라앉습니다. 잠시 벤치에 앉을까요. 오래간만에 하늘도 보고, 흔들리는 잎새 사이로 바람을 느끼고, 어디선가 들리는 새소리도 듣고, 광합성도 해봅니다. 그리웠던 꽃향기도 마스크를 벗고 맡아봅니다. 외출이 여의치 않을 때는 집에서 키우는 화분이라도 살핍니다. 이러한 사이에 출렁대던 마음은 잦아듭니다. 정원이라는 작은 공간이 주는 안식과 평화, 돌봄과 사랑은 때로는 놀라울 정도입니다. 이런 정원의 힘은 인류가 오랫동안 느껴왔고, 그러하기에 정원은 실제의 공간이든, 은유적인 장소이든, 영적이든, 세속적이든 간에 소중히 가꾸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면 정원은 언제 생겨났을까요? 학자마다 의견은 조금씩 다르지만 대개 인류가 방랑을 멈추고 한 곳에 머물러 살기 시작하면서, 농사를 시작하면서 정원을 가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첫 정원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누군가는 당장 생존에 필요한 먹거리를 키우는 텃밭이었을 것이라고 하지만, 또 다른 이는 예술, 어쩌면 종교적인 목적을 위해 꽃이나 향기로운 풀을 가꾸는 화원이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어떤 쪽이든 간에 정원은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을 가꾸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은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정원인 에덴동산(직역하면 에덴 '정원' 이지요)에서도 나타납니다.

성경은 하느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하느님은 흙의 먼지로 사람(아담)을 빚으시고, 그가 머물 동산을 동쪽에 있는 에덴에 꾸미셨습니다. 최초의 정원사인 하느님이 만드신 에덴 정원에선 보기에 탐스럽고 먹기에도 좋은 온갖 나무가 자랐습니다. 열매가 가득했다고 하니 꽃도 만발했겠지요. 동산을 적시고 네 줄기로 흘러가는 강도 있으니 물도 넉넉하겠지요. 자세히 설명되어 있지는 않지만 하느님이 흙으로 빚으시고, 사람이 이름을 붙인 들의 온갖 짐승과 하늘의 온갖 새도 모두 이 에덴동산에 있었을 겁니다. 혼돈에서 질서를 만들어간 창세기에서 정원은 중요한 장소였고, 성경에는 에덴동산을 시작으로 여러 정원이 등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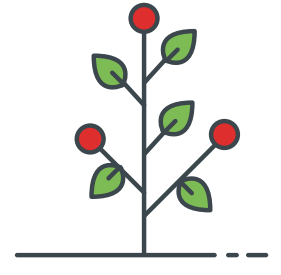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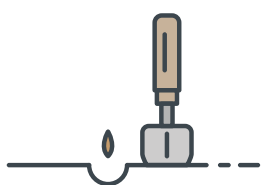
하느님은 아담과 이브를 에덴동산에 두시고, 그곳을 일구고 돌보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에덴 정원은 특별히 관리하지 않아도 모든 것이 풍족한, 모든 정원사가 꿈꾸는 그런 정원이었을 겁니다. 온갖 나무는 열매를 맺었고, 아담과 이브는 모든 동물들을 다스렸고, 고통이나 죽음은 이 낙원 정원에서 배제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시간의 흐름과 계절의 변화, 좋고 낫은 날씨와 같은 자연의 법칙은 하느님의 에덴의 정원에서는 힘을 잃은 듯합니다. 최초의 인간은 에덴동산에서 자연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 최초의 커플은 정원에서 무엇이든 할 수 있었지만, 단 하나 정원 한가운데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이야기가 그러하듯, 이 금기는 이후 일어날 사건의 복선이 됩니다. 간교한 뱀은 이브를 부추기고 그녀는 금지된 것을 탐하게 됩니다. 이브는 유혹에 굴복하여 선악과를 따먹고, 또 아담에게도 이를 먹게 합니다. 그 후

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단박에 선과 악을 알게 된건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아담과 이브는 자기들이 알몸인 것은 깨달았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입습니다. 저녁 산들바람 속에서 에덴 정원을 산책하던(상상만 해도 근사하지 않나요) 정원사 하느님은 이들이 평상시와 다르다는 것을 눈치 챍니다. 마음에 걸리는 게 없다면 하느님을 피해 숨을 일도 없었겠지요. 아담과 이브는 에덴동산에서 추방당하고, 원죄의 대가를 영원히 짊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인류는 ‘다시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양식을 먹을 수 있으리라’는 하느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되었습니다.

에덴 정원을 그리워하는 인류는 지상에 이와 조금이나마 비슷한 장소를 만들고자 했고, 이것이 정원을 만들게 된 까닭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정원은 모든 것이 완벽하고, 절로 자라 열매를 맺기에 가꿀 게 없는 에덴의 정원과 달리 늘 돌보아야 하는 곳입니다. 정원의 울타리를 세우고,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흙을 만듭니다. 각 식물의 특징과 아름다움이 조화를 이루는 곳에 위치를 잡습니다. 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물을 주고, 시든 잎을 떼어내고, 가지를 칩니다. 뒤돌아서자마자 다시 돌아나는 것 같은 잡초도 뽑고, 해충과 같은 불청객이 오지 않는지 시시때때로 지켜봐야 합니다. 힘들 때도 있지만 정원을 가꾸며 우리는 경이로움과 기쁨, 평화라는 축복을 받습니다.



돌봄이 가득한 정원 가꾸기는 영적인 수양을 은유하기도 합니다. 셰익스피어의 <오셀로>에는 “우리의 몸이 정원이라면 우리의 의지는 정원사입니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나’라는 정원이 에덴동산처럼 생명 가득한 아름다운 장소가 될지, 아니면 잡초 무성한 황무지가 될지는 자기 삶의 정원사인 각자에게 달려 있다는 뜻이지요. 자신의, 그리고 이웃의 정원이 항상 향기로운 꽃을 피우고 훌륭한 열매를 맺도록 가꾸는 정원사의 소명이야말로 우리 모두의 소명이 아닐까요. 🌱



그림으로 만나는 성인이야기

‘참 얼굴’을 담은 수건과 성녀 베로니카

윤인복 소화테레사_ 인천가톨릭대학교 그리스도교미술학과(대학원) 교수

전승에 따르면 성녀 베로니카(Veronica, 1세기경)는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 중의 한 여인이었다. 예수님께서 골고타(해골산) 언덕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도성 안 모든 사람이 그 광경을 보려 모여들었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야유와 조소까지 받았다. 예수님은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발걸음을 옮기지만, 결국 십자가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쓰러지고 말았다. 이때 한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와 자신의 머릿수건을 풀어 그분의 얼굴에 맺힌 피와 땀을 닦아 주었다.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나 예수님의 얼굴이 여인의 수건에 새겨졌다. 이때부터 이 여인이 베로니카로 알려졌다. 수건에 새겨진 예수님의 머리 뒤로는 금빛으로 십자가가 새겨져 있고, 얼굴은 가시관 때문에 이마에서 피를 흘리고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이 수건에 새겨진 예수님 얼굴은 거룩한 모습으로, ‘사람의 손에 의해 그려지지 않은 그림’, 즉 ‘아케이로포이에토스’(acheiropoiētos)의 개념을 촉발했다.

아케이로포이에토스(acheiropoiēto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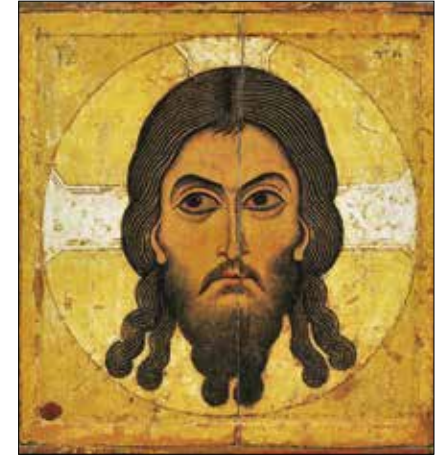
예수 그리스도의 초상의 시작은 ‘사람의 손으로 그려지지 않았다.’(Acheiropoiētos, 아케이로포이에토스)는 전설과 그로부터 전래된 ‘베로니카의 수건’이라는 주제이다. 사람의 손으로 그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자신의 얼굴 모습을 천 위에 남긴 기적을 일컫는다.

비잔틴 교회의 ‘성스러운 전승(Holy Tradition)’에 따르면, 최초의 그리스도 모습은 그리스도가 살아 있을 때 만들어졌다고 한다. 그리스도의 얼굴(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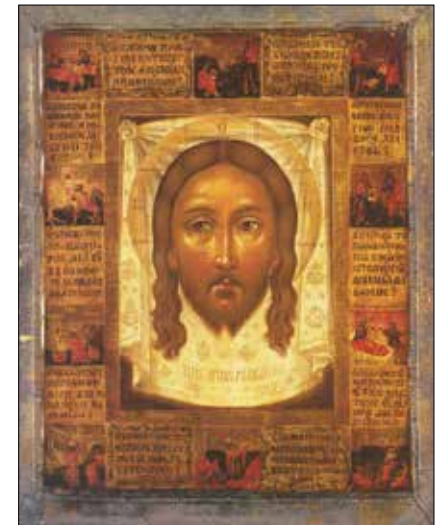
안, 聖顏)은 아마포 수건 위에 묻어났다는 의미로 그리스어로 ‘만딜리온(Mandyllion)’이라 부르지만, 동방정교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아케이로포이에토스(acheiropoiētos)’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아케이로포이에토스는 그리스어로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지지 않은’이라는 의미이며, 이 형상을 최초의 ‘진정한 그리스도 얼굴’로 간주했다.

전설에 따르면,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그리스도의 얼굴 도상은 중병에 걸린 에데사의 왕 아브가르의 이야기에서 기인된다. 왕은 신하를 시켜 병자를 치유한다고 알려진 예수 그리스도에게 치료를 부탁하는 편지를 보냈고, 그리스도께서는 그에게 자신의 얼굴이 그대로 드러난 아마포 수건을 대신 보낸 것이다. 이에 아브가르 왕은 이 그리스도의 이미지를 성스럽게 여기며 성벽의 출입구에 걸게 했다. 도시를 보호하는 수호 성물로서 재난에 닥쳤을 때 신의 가호를 비는 대상인 팔라디움의 기능을 맡기도 했다.

이후 아케이로포이에토스의 명칭은 십자가형 후광을 배경으로 한 그리스도의 얼굴의 도상학적 양식으로 지정된다. 그리스도의 도상에 아케이로포이에토스라는 수식어는 하느님의 지고한 위엄과 그분의 절대적인 힘을 강조하는 데 사용된다. 따라서 이 유형의



〈손으로 만들지 않은 구세주〉, 12세기, 모스크바 트레차코프 미술관



〈에데사의 만딜리온〉, 18세기

그리스도의 모습은 초월적 존재의 신적인 면으로 매우 정적이며 위엄 있는 모습으로 그려진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얼굴만 묘사되고, 그리스도 도상들 가운데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사각의 십자가가 새겨진 원의 중심에 그리스도는 완벽히 정면을 바라보고 있다. 비잔틴 미학의 규정에 따르면, 이 그림의 중심점은 코 끝 부분에 자리한다. 얼굴 양 측면으로는 타래 모양의 긴 머리가 늘어져 있고, 긴 턱수염은 삼각형 모양으로 가지런히 늘어져 있다. 선명한 윤곽의 눈과 그림자가 짙게 깔린 아치형 눈썹은 시선의 깊이를 더하고, 비대칭의 눈동자 위치는 바라보는 시선을 모든 방향으로 확장시킨다.

4세기 비잔틴 미술에서 아케이로포이에토스 유형은 비잔티움 세계의 가장 중요한 화두였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삼위일체를 상징하기도 한다. 보이지 않는 초월적 존재인 말씀으로서의 로고스가 육화되어 인간 그리스도가 되었듯이, 신적 존재인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얼굴이 물질적 표상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된 것을 보여주는 도상이다.

베로니카의 수건

“베로니카, 수건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드리다”(십자가의 길' 제6처 중에서)

베로니카의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가톨릭교회에서는 전통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이는 중세부터 바로크 시기에 이르기까지 지속해서 그려지던 중요한 미술의 주제였다. 일반적으로 화가들은 수건에 새겨진 예수님의 얼굴만 그리거나, 베로니카가 예수님의 얼굴이 찍힌 수건을 들고 있는 모습을 묘사한다. 그리고 베로니카가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의 얼굴에 맺힌 고통스러운 피와 땀을 닦아드린 것을 기억하며 ‘십자가의 길’ 장면과 함께 나타난다.

플랑드르 화가 한스 멤링(Hans Memling, 1435년경~1494)은 그리스도의 얼굴이 새겨진 수건을 펼쳐 보이고 있는 베로니카를 15세기 북유럽 회화

의 감탄할만한 사실주의적 묘사로 우아하고 세련되게 해석하여 표현했다. 이 그림은 본래 두 폭 제대화로 왼쪽은 성 요한의 모습이, 오른쪽은 성녀 베로니카의 모습이 담겨있다. 그림 속 자연풍경은 매우 인위적이지만, 엄격하리만큼 정확하게 묘사적 리얼리즘을 구사하고 있다. 베로니카의 뒤로 굽이굽이 이어진 들판과 산, 푸른 하늘과 연결된 도시는 중앙의 베로니카와 그리스도의 얼굴과 조화를 이룬다. 질서 정연한 공간 속에 화가는 베로니카의 의상을 성모 마리아처럼 붉은색과 푸른색을 입은 연인으로 섬세한 묘사와 함께 상징성을 부여했다.

멤링의 사실주의적 기법은 베로니카가 앉은 바닥에 표현된 풀잎과 꽃 등의 세부 묘사, 머리 수건과 옷 주름과 함께 예수님의 얼굴이 새겨진 수건의 주름 등에서 매우 잘 처리되었다. 그러나 이상하게 베로니카가 들고 있는 그리스도의 얼굴에는 주름의 흔적이 전혀 없다. 마치 주름 접힌 수건에 예수님이 어디선가 나타나 얼굴만 수건 위에 떠 있는 것 같기도 하다. 수건의 주름을 따라 예수님의 얼굴이 구겨져 있다고 상상해보자. 화가는 나름대로 베로니카 수건의 성스러운 기적을 강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시사하고자 한 것이다. 이 까닭에 화가들이 그린 그리스도의 얼굴은 ‘성스러운 얼굴’(Volto



한스 멤링, <성녀 베로니카>(일부), 1483년경, 워싱턴 내셔널 갤러리

Santo)이라고도 불린다.

사실과 상징성을 동시에 지닌 풍경과 인물은 세부적인 묘사를 선호하는 북유럽의 감각을 드러낸다. 화가는 우리가 두 눈을 지그시 아래로 향한 베로니카를 따라가면 수건 속 성스러운 존재, 예수님과 만나도록 인도한다.

성스러운 얼굴을 담은 수건

성녀 베로니카가 실존 인물이었는지에 관해서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녀의 이름을 풀어보면 ‘참 얼굴’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라틴말 ‘베로니카’는 베라(vera, 참, 진실한)와 이콘(icon, 형상)의 합성어이다. 따라서 베로니카의 수건은 ‘참(진실한) 얼굴을 담은 천’이라 말할 수 있다. 베로니카가 예수님의 얼굴을 닦은 수건은 로마의 성 베드로 성당에 보관되었으나, 1527년에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 카를 5세가 이끈 군대가 교황령의 수도 로마를 침략하여 약탈(로마 약탈)하면서 소실되었다고 한다.

‘베로니카의 수건’이라는 도상(圖像)은 중세말기 전성기를 맞았으나, 후대 독일의 알브레히트 뒤러, 스페인의 엘 그레코나 수르바란 같은 화가들에 의해 그려졌다. 다만 이들의 작품은 중세의 인간의 애뜻하고 친밀한 감정 보다는 절제된 감정이 드러난다.

스페인 바로크 최고의 화가를 손꼽으려면 프란시스코 수르바란(Francisco de Zurbaran, 1598~1664)을 거명할 수 있다. 대부분 세비야에서 활약했던 그는 오래된 수도원이나 성당에서 의뢰한 작품들을 제작했으며, 많은 작품 속에서 사도나 성인·성녀, 수도사들의 기적이나, 환상·황홀경에 빠진 몽환적 비전과 사실주의적 묘사를 통해 작품을 설득력 있게 표현했다. 특히 수르바란은 이탈리아 바로크 회화의 거장인 카라바조의 사실주의와 테네브리즘(Tenebrism, 명암대조기법)에 스페인의 종교적 감수성을 결합하여 최고의 영성 미술을 발전시켰다. 그래서인지 수르바란의 작품에는 화가 자신의 강렬한 종교적 신앙심마저 느껴진다. 그가 그린 베로니카의 수건은 짙은 검은색 벽에 흰색 천이 네 모서리로 고정돼 있다. 이 주제를 말

하는 베로니카도 없고, 간혹 수건을 들고 있는 천사들도 배제된 채, 고통스러운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련히 남아 있다. 전형적인 바로크 회화의 ‘눈속임 기법’(trompe-l'oeil, 트 롱프뢰유), 즉 실물로 착각할 정도로 철저한 사실적 묘사를 하여 보는 이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수난을 더욱 실감나게 한다. 수건에 새겨진 그리스도의 얼굴은 흐릿한 황색의 모노톤으로 핏기라고는 전혀 없이 창백하기 그지없다. 뚜렷하지 않아서 더 애처롭고 쓸쓸해 보이기까지 한 얼굴은 고통스럽게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



수르바란, <성녀 베로니카의 수건>, 1635년경, 스톡홀름 국립 미술관

“어둠 속에서 빛이 비추어라.’ 하고 이르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비추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보는 빛을 주셨습니다.”(2코린 4,6) ☺

[가톨릭직장인] 후원금 안내



- 개인 후원: 1구좌 당 70,000원
- 교우회 후원: 1구좌 당 300,000원 (월보 뒷면에 광고 게재 가능)
- 계좌번호: 우리은행 1005-501-784447 예금주)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을 원하시면 사무실로 연락해 주세요.)
- ※ 후원금 보내주실 때 계좌번호를 한 번 더 확인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직장사목팀 성지순례

- 일시 : 9월 16일(토) 07:00 ~ 18:00
- 장소 : 배론성지
- 인원 : 50명 (가족이 함께 할 수 있습니다.)
- ※ 자세한 사항은 교우회 공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견진성사

지난 7월 2일(주일), 14:00 명동대성당에서 손희송 베네딕도 총대리 주교님의 주례로 총 27분 견진성사가 있었습니다. 견진성사를 받으신 분들께 축하의 마음을 전합니다.

직장명	인원
KIST	1
강서구청	2
국회	11
보건환경연구원	1
서울시인재개발원	1
서울시청	3
서초구청	3
아모레퍼시픽	1
우리은행	3
한국건설기술인협회	1
총	27



**유기순환 생명농업으로 땅과 생명을 살리는
2023년 우리농 추석물품 만나보세요.**

추석선물 공급일 2023.09.04(월) ~ 2023.09.27(수)

추석선물 예약일 2023.09.19(화) 오전 10시 마감

※ 우리농 한우, 굴비, 전복 등 물품별 상이,
마감 후 순차 택배발송 (물품별 상세정보 확인)



우리농장보기 바로가기

★ 가톨릭회관 1층 우리농 명동나눔터에서도 물품 구매 및 예약 가능합니다.



Maundy Thursday

: the Thursday of Holy Week, commemorating Jesus' Last Supper and His washing of the disciples' feet upon that day.



www.catholicworkers.or.kr

Tel: 02-727-2078, 2080 Fax: 02-753-3792

Mobile: 010-4799-2078, KakaoTalk ID: gikjang

E-mail: gikjang@catholic.or.kr